

일제 강점기에 일본과 한국에서 독립 기독교회 선교사 윌리엄 D. 커닝햄의
조선인 기독교회 사역에 동참했던 성결교 출신 목회자들

Holiness Church-trained pastors who collaborated with Independent
Christian Churches missionary William D. Cunningham in establishing
Korean Christian Churches in Japan and Korea during the Japanese colonial
period.

조동호(그리스도의 교회 연구소)



William D. Cunningham (1864.07.19.-1936.06.24) Emily Boyd Cunningham (1873.02.20-1953.12.25)
한국 그리스도의 교회들의 개척자, 도쿄 요츠야선교부 대표 선교사
[출처: Tokyo Christian]

한국 그리스도의 교회들이 도쿄 요츠야 기독교회 선교부에 의해서 처음으로 도쿄와 한국에 세워질 당시인 1923-41년 사이에 윌리엄 D. 커닝햄 선교사 부부에 고용되어 사역했던 목회자들의 대다수가 성결교출신이었다. 그들 가운데 이인범, 이원균, 김상준, 주정국, 윤낙영, 이성영, 신신근 등이 있었다. 이렇게 된 데에는 배후에 이인범 목사가 있었다. 또 성결교 출신은 아니지만, 윌리엄 커닝햄에

고용되어 횡빈(요코하마)조선기독교교회와 ‘동경사곡(요츠야)선교회 기독교회’의 초대 조선포교관리자였던 성낙소도 성결교 목사 광재근의 추천서를 받아 1920년 8월부터 1922년 3월까지 죽첨정에 소재한 경성성서학원에서 수학하였고, 동양선교회 성결교회의 창시자들 가운데 한분이었던 김상준과도 친분이 있었다. 이분들이 남긴 교회들의 흔적으로는 도쿄 미카와시마 동경복음교회, 인천 송현성결교회, 인천제일교회(장로교 통합)가 있다.

이인범은 성낙소에 이어 ‘동경사곡선교회 기독교회’의 제2대 포교관리자가 된 직후, 여러 차례 변경계와 폐지계를 조선총독부 학무국 사회과에 신고하여 성낙소와 김문화의 업적을 모두 지워버렸다. 이후 교단 명칭을 ‘기독교회 조선선교회’로 변경하고 자신을 제1대 포교관리자로, 신신근을 제2대 포교관리자로 등록하였다. 그러나 기독교회 조선선교회에 소속되었던 교회들은 오늘날 그리스도의 교회들 가운데 단 하나도 남아 있지 않다.

북한 지역에 세워졌던 교회들은 남북 분단으로 인해 존재 여부조차 확인할 수 없게 되었고, 남한에 세워진 교회들 가운데서는 인천송현성결교회와 인천제일교회(장로교 통합)의 교회사 기록을 통해서만 이들 교회가 과거 기독교회 조선선교회 소속이었음

을 알 수 있다. 1943년 5월 일제의 강압으로 인천 금곡동교회와 유동(화정)교회가 송현기독교교회에 병합되었고, 신신근이 별세한 지 8일 뒤인 1946년 12월 10일 송현기독교회는 인천송현성결교회로 재건되었다. 또한 1945년 11월 송현기독교회에서 분리되어 정삼선이 시무했던 또 하나의 교회는 이후 인천제일장로교회(통합)로 재건되었다.

조선인 기독교회들 가운데 전후에 유일하게 재건된 삼하도(미카와시마)교회는 1960년 6월 요츠야 선교부로부터 재산을 양도받은 뒤, 1969년 8월 명의를 변경하여 초교파적 성격의 동경복음교회로 발전하였다.

우리가 이분들에 대해서 연구하고 기록으로 남기려하는 목적은 우리가 지나온 다리들을 잊지 않기 위함이며, 그 다리를 세워 준 선배들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잃지 않기 위함이다. 미국 그리스도의 교회들의 찰리 웨인 킬패트릭(Charlie Wayne Kilpatrick)이 말했듯이, “우리는 거인들의 어깨 위에 서 있다!”(We are standing on the shoulders of giants!) 거인들은 자신의 희생적인 삶을 통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했고, 오직 성경말씀 위에 선 교회가 되기 위해 힘써 온 분들이다.

우리는 누군가가 짊어진 십자가에 의지한다(We rely on the cross that someone else has carried.) 우리가 주 예수께서 지신 십자가를 통해 구원의 은혜를 받은 것처럼, 한국의 기독교회가 이 만큼 성장해 온 것은 누군가가 짊어졌던 십자가 덕분이다. 시몬이 골고다로 가는 길에서 주님의 십자가를 함께 졌던 것처럼, 우리 모두는 시몬처럼 주님의 십자가를 함께 지는 자들이다.

거인들이 짊어졌던 십자가를 통해, 그리고 그들이 놓아 온 디딤돌과 세워 온 다리를 통해, 또 우리가 놓을 디딤돌과 세울 다리를 통해 과거 세대와 다음 세대를 연결할 수 있다. 그래서 일제 강점기에 일본과 한국에서 독립 기독교회 선교사 윌리엄 D. 커닝햄의 조선인 기독교회 사역에 동참했던 성결교 출신 목회자들에 어떤 분들이 있었고, 그들이 어떤 일들을 했는지를 정리하고자 한다.

성결교회 목회자들이 요츠야 기독교회 선교부에서 목회자로 섬기게 된 이유에 대해서는 아래와 같이 대략 네 가지로 추정해볼 수 있다.

첫째, 일제 강점기에 생활이 어렵던 목회자들이 먼저 발을 디딘 이인범 목사 등의 권유를 받았을 때 선뜻 응했을 것으로 추정되는데, 그 이유는 요츠야 선교부가 매월 지급하는 급여 때문이었을 것이다. 많은 돈은 아니었을지라도 매월 일정액의 생활비를 지급받았기 때문이다. 일본인 목회자들과 조선인 목회자들뿐만 아니라, 요츠야선교부에 소속된 모든 외국인 선교사들도 월급을 받았다.

둘째, 모두는 아니었더라도 일부는 신약성경교회 회복운동에 공감했고 필요한 개혁운동이라고 생각했을 수 있다. 커닝햄이 조선의 여호수와 혹은 조선의 알렉산더 캠벨이라 칭한 이인범과 조선의 갈렙 혹은 조선의 발톤 스톤이라 칭한 이원균도 마찬가지였다. 이인범이 요츠야선교부에 보낸 마지막 편지가 「도쿄 크리스천」 1941년 2월호에 실렸는데, 그 글에서 이인범은 자신이 죽을 때까지 주님께 신실하겠으며, 죽을 때까지 한국 그리스도의 교회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것은 그들이 심적으로든 확신으로든 신약성경교회 회복운동인 무교파 ‘기독교회’(Christian Churches and Churches of Christ)에 크든 작든 공감했었다는 것을 말해주는 사례로 보인다.

셋째, 성결교회가 창립 초기에 교파나 교단으로 제도화되는 것에 대해 부정적이었던 점도 목회자 이탈의 한 원인이었을 것이다. 창립자 중 한 사람인 정빈(鄭彬)은



정빈 전도자(좌)와 김상준 목사(우)

복음전도관이 교파로 발전하는 것에 반대하여 1914년 4월 22일 목사 안수식 때 안수를 받지 않았고, 같은 해 9월 30일 이 문제로 김상준(金相濬)과 의견 충돌을 빚었으며, 사직하고 북간도로 건너갔다가 1917년 복직하였으나 복음전도관이 ‘조선예수교동양선교회 성결교회’라는 교단조직으로 개편되려 하자 1921년 다시 사직하고 북간도로 떠났다. 목사 안수를 받았던 김상준 역시 1917년에 사직하여 동양선교회 복음전도관을 떠났고, 이후 비교파 초교파적 부흥목사로 활동하였다. 호주성산성결교회 임운규 목사는 이들이 성결교회를 떠난 이유를 ‘동양선교회’의 비교파적 정신을 버리고 “기존 교단들과 같이 목사라는 성직제도와 교단조직을 가진 기존 교단, 즉 제도화된 전통교회의 성격을 지니게” 된 때문이라고 추정하였다(“한국성결교회의 개척자 김상준과 정빈,” Daum 카페: 크리스천투데이). 또한 김상준 목사가 일본의 ‘비교파’(non-denominational), ‘오직 그리스도인’(Christians only), ‘신약성서교회’(New Testament Church)를 표방하는 기독교회(그리스도의 교회)의 초빙을 받아드려 1931년 7월 1일부터 1933년 3월까지 동경 삼하도(미카와시마)조선인기독교회를 섬긴 것도, 그가 이러한 비교파적 신앙 정신을 공유했기 때문인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넷째, 일제 말기에 일부 성결교회 목회자들이 타 교단에서 사역하게 된 또 다른 이유는 성결교회 포교관리자 이명직(牧野明植)을 포함한 목회자들 전원에 대한 포교폐지계가 1943년 12월 29일 일괄 제출되었고(「조선총독부 관보」 제5100호 5-7면, 1944년 2월 5일), 다음날 30일 해산성명서를 발표토록 했으며, 그 다음날인 31일 이명직(牧野明植)의 포교관리자폐지계를 제출케 함으로써 성결교회가 조선총독부로부터 일괄 포교폐지 처분을 받았기 때문이다(「조선총독부 관보」 제 5111호 13면, 1944년 2월 19일). 당시 그리스도의 교회들이 조선총독부 학무국 사회과에 신고한 형제교단들에는 세 개 곧 ‘기독교회 조선선교회(전 동경사곡선교회 기독교회),’ ‘기독교회’ 그리고 ‘기독교교회’(基督の教會)가 있었는데, 이 세 형제들 가운데 ‘기독교회’(현 그리스도의 교회 협의회와 총회)는 성결교회보다 만 6개월 뒤인 1944년 6월 30일 일괄 포교폐지 처분을 받았다(「조선총독부 관보」 제5306호 1면, 제5352호 5면, 제5387호 3면). 일제의 억압에 의한 포교폐지처분은 이들 교단들이 신사참배를 반대했거나 일본 기독교조선교단에 가입하는 것을 반대했기 때문이었다.

다섯째, 성결교회는 1943년 12월 29일 포교폐지를 당하기전까지 강, 바다, 침례 못(경성 6개 교회는 경성성서학원의 침례 못에서 의식을 행함) 등에서 침례를 행하였다. 세례로 바뀐 것은 해방 후 재건되면서부터였다(예성 교회사가 임흥근 목사). 따라서 성결교 목회자들이 요츠야 선교부 조선기독교교회들을 섬기는 데 큰 장애가 없었다.

소속 교단이 강제로 포교활동을 중지당한 이후 목회자들의 선택은 크게 갈렸다. 일부는 위험을 감수하고 지하교회로 활동을 지속했으며, 또 다른 일부는 목회를 중단하거나, 포교폐지를 당하지 않은 타 교단으로 옮겨 사역을 이어가는 길을 선택하였다. 전체적으로 당시의 포교폐지 조치는 교단의 존속뿐 아니라 목회자 개인의 사역 방향에도 중대한 변화를 초래한 사건이었다.

이인범(李寅範) 목사

1. 이인범 목사의 동양선교회 성결교회에서의 활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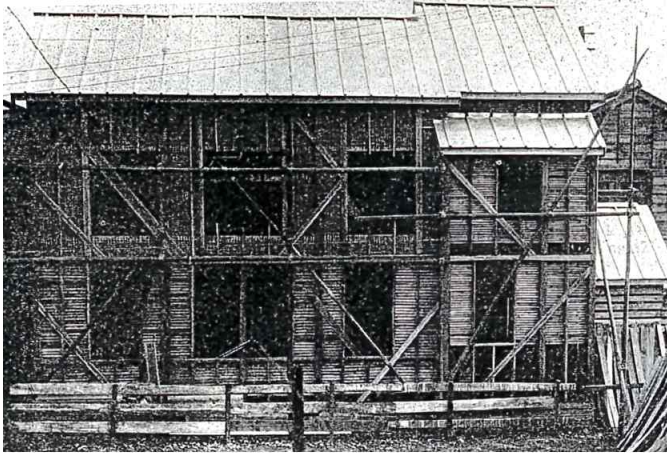


이인범 목사(1896.09.25.-1951)
기독교회 조선선교회 포교관리자
[출처: Tokyo Christian]

이인범 목사는 1936년 1월 10일 조선총독부 학무국 사회과에 제출한 이력서에서 원적을 황해도 곡산군 운중면 유촌리, 생년월일을 1896년(명치 29년) 9월 25일생으로 기재하였다. 학력과 경력으로는, 1919년(대정 8년) 동양선교회 신학원 졸업, 1919-24년 12월까지 성결교회전도사 시무, 1925년 9월부터 1933년 9월까지 동경시 심천구 조선기독교회 목사 시무, 1933년 9월 조선 인천부 송현리 기독교회 목사부임이라고 기재하였다. 그러나 이 이력서는 기존에 알려진 것과 다소 차이가 있다. 기존의 내용은 이인범이 1917년 경성성서학원에 입학하여 김상준 목사 밑에서 배웠고, 1920년에 졸업(제9기)하였으며, 졸업 직후 경안교회에 부임(副任) 교역자로 부임(赴任)하였고, 동년에 무교정교회에 부임(副任) 교역자로 부임(赴任)하였다가 1921년에 강경교회로 오게 되었으며, 1924년에 동막교회(현 신수동성결교회)로 전근되어 시무하다가 1926년에 면직되었다는 내용이었다[이명직, 『조선 예수교 동양선교회 성결교회 역사』, 1929, 157쪽].

조선총독부관보에 실린 내용을 보면, 동양선교회 성결교회는 1920년 6월 10일 이인범(경기도 광주군 경안면 경안리)의 포교계를 계출하였고(「조선총독부관보」 제2369호 4면, 대정 9년 7월 3일), 1921년 1월 15일에는 경기도 광주군 경안면 경안리에서 경기도 경성부 무교정으로 포교자거주지이전계를 계출하였다(「조선총독부관보」 제2646호 6면, 대정 10년 6월 7일). 그리고 1924년 8월 6일에 경기도 경성부 무교정 12번지에서 충청남도 논산군 강경면 북정교회로 포교자거주지이전계를 계출하였다(「조선총독부관보」 제3674호 6면, 대정 13년 11월 12일). 이어서 동양선교회는 1925년 1월 29일 경기도 고양군 용강면 동막하리 성결교회에 이인범의 포교담임자계를 계출하였다(「조선총독부관보」 제3792호 7면, 대정 14년 4월 9일). 그리고 1926년 12월 22일 동양선교회는 이인범(경기도 고양군 용강면 동막하리)의 포교폐지계를 계출하였고(「조선총독부관보」 제121호 15면, 소화 2년 5월 27일), 1927년 1월 27일 동막성결교회의 구포교담임자 이인범(경기도 고양군 용강면 동막하리 85번지)을 신포교담임자 박정훈(경기도 고양군 용강면 아현리 64의 20번지)으로 포교담임자변경계를 계출하였다(「조선총독부관보」 제121호 14면, 소화 2년 5월 27일).

2. 이인범 목사의 도쿄 요츠야 선교부 조선인 기독교회들에서의 활동



도쿄 심천조선인기독교회의 건축 중인 모습(1936)
건축비 부족으로 완공이 계속해서 미뤄지고 있었다.

독교회 제1대 담임자로 섬겼다.

이인범은 심천조선인기독교회를 시무하던 1932년 8-9월 2달간 그리고 그 이듬해인 1933년 2-3월에 40일간 요츠야 선교부의 지원을 받아 한국교회들을 탐방할 기회들을 가졌고, 부흥집회들을 인도하여 괄목할만한 성과를 얻었다.

첫 번째 탐방일자는 1932년 8월 1일이었다("ABOUT PEOPLE," *Tokyo Christian*,



평북 구성군 방현 그리스도의 교회 예배당(1935년) [출처: *Tokyo Christian*]
현교회를 포함해서 총 3개 교회를 기독교회(그리스도의 교회)로 환원시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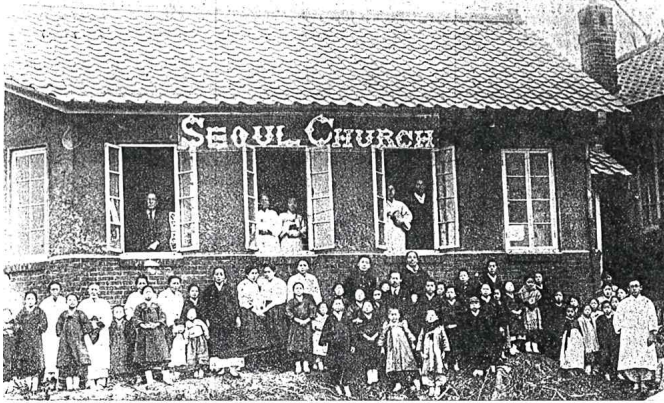
이들 집회를 통해서 총 138명에게 침례를 베풀었다("What Would You Do?," *Tokyo Christian*, 1932년 11월호 4쪽.; "Evangelist Lee and Family," 1932년 10월호 1쪽.; "Evangelism," 1933년 2월호 2쪽.; "Another 'Venture of Faith'," 1933년 2월호 4쪽).

두 번째 탐방일자는 1933년 2월 중순에서 3월 24일까지 40일간이었다("ABOUT PEOPLE," *Tokyo Christian*, 1933년 5월호 1, 4쪽). 이 기간의 활동은 주로 수도권인 서울 창동교회와 인천 송현교회 등에서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 서울의 창동교회는 1930년에 예배당을 건축했으나 그 대금을 지급하지 못한 상태여서 임대료를 내고 예배당을 사용하고 있었다. 이인범의 두 번째 탐방은 창동교회의 초청과 요츠야 선교부의 기대감으로 이뤄진 것이었는데("Church in Seoul, Korea," *Tokyo Christian*,

이인범 목사는 동양선교회 성결교회로부터 1926년에 면직된 후 일본에 건너가 1933년 9월 조선인 기독교회 포교관리자로 입국할 때까지 7년간 도쿄 조선인들의 교회들을 섬겼다. 1927년 8-9월 경에 요츠야 선교부의 동경 삼하도(미카와시마)조선인기독교회 선교기지에 투입되었다가 1929년 11월부터 1933년 8월까지 근 4년간 동경 심천(후카가와)조선인기

1932년 9월호 1쪽). 중순경 평북 구성군 호켄(방현)면 하단동 방현교회와 인근 교회들에서 부흥집회를 인도하였는데, 21일(주일) 하루에만 방현교회에서 2명의 장로(父子 의사)와 12명의 집사를 포함하여 총 93명에게 침례를 베풀었다. 그는 이때의 부흥집회들에서 방

1933년 3월호 1쪽), 이번에도 놀라운 성과를 거두었다. 2월 19일에 27명에게 침례를 주었고("ABOUT PEOPLE," *Tokyo Christian*, 1933년 4월호 1쪽), 3월 8일에 서울



이인범 목사를 목회자로 모시려했다가
1932년 11월 20일 성낙소 목사를 청빙한 창동교회

(창동교회?)에서 8명에게 침례를 베풀었다. 그리고 3월 12일에는 제물포(송현교회와 난도/남동교회?)에서 13명에게 침례를 베풀었다("ABOUT PEOPLE," *Tokyo Christian*, 1933년 5월호 1쪽).

이 무렵은 성낙소 목사가 조선 포교관리자였고, 인천 송현교회와 난도(남동, 부천군)교회 모두를 관리하고 있었다. 서울 창동교회는

이인범이 목회자가 되어 주기를 바랐으나 뜻을 이루지 못했고, 이인범의 추천으로 몇 차례의 공동회의를 거쳐서 1932년 11월 20일 성낙소를 목회자로 청빙한바가 있었다('도쿄 크리스천', 1933년 3월호, 1면).



J. 마이클 셸리 선교사 환영 기념 사진(1935년 3월 24일)
주일에배 직후에 촬영한 인천 송현기독교교회 단체사진. 앞줄 중앙의
미국인 남성이 셸리이고, 우측이 딸 레이첼이며, 그 옆이 이인범 목사이다.

송현기독교교회는 도쿄 삼하도(미카와시마)조선인기독교교회를 섬기던 장로교목사 박흥순(미국으로 유학을 떠난 삼하도교회 개척자 박경순의 형)이 요츠야 선교부의 파송을 받아 조선기독교교회 포교자로 서울 계동에서 활동할 당시 집사였던 전기기사 정삼선이 진센(제물포)에 유진우와 함께 처음부터 기독교회(그리스도의 교회)로 개척한 교회였다.

이인범의 성공적인 전도활동에 대해서 윌리엄 커닝햄은 "제10교회의 이 전도사(우리에겐 갈렙과 여호수아가 한 몸이 된 듯한 분)는 3월 말, 40일간의 두 번째 한국 순회를 마치고 돌아왔다. 이번 순회에서 그는 이전 여정보다 설교는 덜 했고 조사는 더 많이 수행했다. 54명에게 준 침례는 우리의 갈렙이자 여호수아가 가져온, 쉽게 수확한 에스골(Eschol) 포도송이 같았으며, 이는 그 선교지가 얼마나 무르익고 풍성한지를 보여준다."("MR. LEE'S SECOND SURVEY IN KOREA," *Tokyo Christian*, 1933년 5월호 4쪽)라고 적었다.

요츠야 선교부가 이인범의 괄목할만한 성과에 크게 고무되었던 것은 일본에서는 좀처럼 보기 드문 선교성과가 조선에서는 가능하다는, 일찍부터 널리 알려진 사실이 이인범을 통해서 입증됐기 때문이었다. 추정컨대, 커닝햄은 다소 흥분된 상태에서 1933

년 5월 20일 조선포교관리자직에서 성낙소를 해임하고 그 자리에 이인범을 파송하기로 6월 5일 정기 월례회의에서 만장일치로 결의안을 통과시켰다("Enlarged Program for Korea," *Tokyo Christian*, 1933년 8월호 1쪽). 요츠야 선교부는 1933년 9월 이인범을 조선 기독교회 포교관리자로 파송하면서 문구를 새긴 손목시계까지 선물하였다("Editor's Netes," *Tokyo Christian*, 1933년 11월호 3쪽). 이인범의 만딸이 6월 17일 결핵으로 사망한지 3개월만이였다("EDITOR'S NOTES," *Tokyo Christian*, 1933년 8월호 1쪽). 이후 이인범은 1943년 9월까지 10년(합법적으로는 7년 8개월간) 동안 기독교회 조선선교회 포교관리자로 헌신하였다. 급여는 월 25달러 정도였던 것으로 추정된다("Miscellaneous," *Tokyo Christian*, 1933년 5월호 2쪽).



윌리엄 D. 커닝햄(중앙)
이인범(좌), 이원균(우), 1936년경 도쿄

요츠야 선교부 대표 선교사 윌리엄 D. 커닝햄은 성낙소, 존 채이스(John T. Chase), 마이클 셸리(J. Michael Shelley)를 가볍게 내친 대가를 만 2년(1934-35년) 정도 혹독하게 치러야했었고, 이인범이 계출하려는 포교관리자변경계는, 조선총독부 총독 2회 및 제30대 내각총리대신을 지낸 해군 제독 사이토 마코토의 도움을 받고나서야, 비로소 1936년 1월 10일 수리되었다. 그리고 나서 윌리엄 커닝햄의 가까운 이웃이자 도움이었던 사이토 마코토는 한 달 보름후인 2월 26일 도쿄 요츠야 자택에서 청년 장교들이 일으킨 쿠데타군의 습격을 받아 사망하였다. 그리고 4개월여 뒤인 6월 24일, 커닝햄은 미국 샌프란시스코항을 거쳐 로스앤젤레스항에서 내려 자동차로 동부로 향하던 중, 암으로 인해 미네소타주 로체스터의 메이요 형제 병원(Mayo Bros.)에서 별세하였다("FAITHFUL UNTO DEATH. Promoted to Higher Service," *Tokyo Christian*, 1936년 9월호, 1-2쪽).

커닝햄은 이인범과 이원균을 지나치게 신뢰하고 지지하는 동안, 다른 동료였던 성낙소와 존 T. 채이스를 해고하였다. 채이스를 지지하던 여선교사들 역시 함께 사퇴했고, 요츠야 선교부의 오랜 후원자이자 한국 선교사에 지원하여 일본 땅을 밟은 J. 마이클 셸리조차도 이



경성아현기독교교회(1936년 3월 22일)
윌리엄 D. 커닝햄은 1936년 3월 3일 선교부에 부임한 토마스 G. 헛치(Hitch)를 대동하고 그달 19일부터 시작하여 한국의 모든 기독교회 선교지를 순방하였다. 그러나 이 순방이 그의 마지막 선교지들의 방문이 될 줄을 아무도 예상치 못했다.

런 정황 때문에 요츠야 선교부와 결별하였다. 더구나 오랫동안 그의 든든한 우군이었던 사이토 마코토마저 불행한 운명을 맞이했다. 커닝햄은 이러한 슬픔 속에서 사이토를 떠나보낸 직후, 자신의 몸에 암이 자라고 있다는 사실도 모른 채 호주에서 갓 청빙한 옛 동료 토마스 히치(Thomas G. Hitch)와 함께 한국의 모든 기독교회 선교지를 순방하였다. 이동 거리가 총 2,860마일(약 4,600km)에 달했다(“IMPRESSIONS OF THE WORK IN KOREA,” *Tokyo Christian*, 1936년 5월호 2-4쪽). 이 순방기간에 이인범이 조선총독부에 제출한 포교관리자변경계가 확실히 처리된 것을 인지한 것으로 보인다(“Korean Notes,” *Tokyo Christian*, 1936년 5월호 2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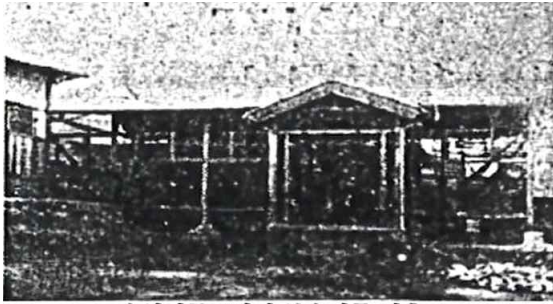
그리고 4월 24일, 커닝햄 부부는 동경을 떠나 미국으로 향했다. 이날 동경역에는 100여 명이 나와 그를 환송했고, 그중 60여 명은 요코하마 항까지 기차로 동행하며 작별을 아쉬워했다. 그러나 누구도 이것이 그의 마지막 이별이 될 줄은 알지 못했다. 그로부터 꼭 석 달 뒤인 1936년 6월 24일, 커닝햄은 미국에서 암으로 생을 마감하였다(“HOMEWARD BOUND,” *Tokyo Christian*, 1936년 8월호 4쪽; “Cunninghams Farewelled On April 24,” *Tokyo Christian*, 1936년 6월호 1쪽).

[커닝햄의 SOS를 받고 호주에서 3월 3일 입국하여 19일부터 모든 조선기독교회 선교지들을 순방한 다음 채이스와 셸리가 미국에서 전개한 오해들을 해명하고 선교지원을 호소하기 위해 미국으로 떠나는 커닝햄 부부를 위해 토마스 G. 히치가 쓴 글: “선교사 부부 송별회 4월 24일”]

만약 우리의 모든 후원자(친구)분이 먼저는 도쿄역에서, 그다음에는 요코하마 부두에서 커닝햄 부부에게 “안녕”이라는 작별 인사를 건네기 위해 모여든 그 수많은 인파를 직접 보셨다면, 그분들에 대해 무분별하게 유포되었던 온갖 악의적인 소문들을 결코 믿지 않으셨을 것이라고 이곳에 있는 우리 모두는 확신합니다. (사정상 자리를 비울 수 없었던 한 분을 제외한) 도쿄 모든 교회의 목회자들이 그들을 송별하기 위해 찾아왔으며, 배 위에서 약 여섯 달 동안 보지 못할 그들의 마지막 모습을 눈에 담기 전까지 함께 찬송을 부르고 기도를 드렸습니다. 배가 있는 곳까지 “안녕”이라는 인사를 건네기 위해 20마일(약 32km, 도쿄역에서 요코하마항까지)의 거리를 이동해 온 이들이 60명이 넘었으며, 도쿄역에서도 40명이 넘는 이들이 그들을 송별했습니다. 이곳 사역을 더 많이 지켜볼수록, 이것이 얼마나 위대한 사역인지 더욱 확신하게 됩니다. 만약 커닝햄 형제와 자매가 하나님의 진실하고 신실한 종이자 청지기가 아니었다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35년간의 수고에 이토록 큰 복을 내려주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이곳의 모든 이는 여섯 달의 시간이 흐른 뒤 그들이 건강히 돌아오는 것을 대단히 기쁘게 환영할 것입니다. 우리는 그분들이 너무나도 그립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짧은 안식년(휴가) 기간 동안 가능한 모든 방법으로 풍성한 복을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해 주십시오. 아울러 그들이 없는 동안 이 사역을 이어 나갈 이들에게도 은혜와 지혜가 더해지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T. G. H. (“Cunninghams Farewelled On April 24,” *Tokyo Christian*, 1936년 6월호 1쪽).

[커닝햄이 사망전 1936년 5월호에 실은 '한국 소식']

서울 제2교회는 최근 모임을 가질 예배당 건물을 매입했습니다. 이들은 선교부에 아무런 재정적 도움도 요청하지 않았습니다. 제물포 제1교회는 3년 전에 지은 예배당이



송현기독교교회의 부속건물 건축

비좁을 정도로 성장하여, 현재 또 다른 건물을 건축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장로교회들은 글을 읽지 못하는 사람을 교인으로 받아들이기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서울 교회의 모든 성도는 매일 최소한 한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기로 서약했습니다. 호켄(방현) 교회는 새 목사관을 매입하고 부목사를 청빙했습니다. 일부 타 교파 친구들이 3년 전 인천(진센) 교회의 예배당 건축을 도왔습니다. 이 교회는 현재 다시 건축 중이지만 타 교파 친구들로부터 아무런 도움을 받지 않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기독교회(Church of Christ)가 세워지는 곳에서는 교파주의가 쇠퇴하거나 사라지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인천 교회의 성도들은 여름이나 겨울이나 매일 아침 평균 30명이 모여 4시 30분부터 5시 30분까지 기도합니다. 불과 하루 전에 통지했음에도 불구하고, 호켄(방현)에서 이인범 전도자와 두 명의 선교사(커닝햄과 히치)를 환영하기 위해 300명의 그리스도인이 모였습니다. 그들은 세 사람 모두가 설교해야 한다고 요청했습니다. 히치(Hitch)는 두 명의 통역사를 거쳐 설교했습니다. 한 사람은 영어를 일본어로 통역했고, 다른 사람은 일본어를 한국어로 통역했습니다. 서울에서는 10명에서 15명의 그리스도인들이 예배당을 위해 기도하고자 1월 1일부터 매일 아침 4시 30분에 모이고 있습니다. 스테인드글라스 창문 하나를 만들 가격이면 그들에게 예배당을 지어줄 수 있습니다. 이인범은 조선총독부로부터 요츠야 선교부의 조선포교관리자로 선교 사역을 감독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을 승인받았습니다. 우리의 몇몇 친구들은 우리가 한국에 법적 대표자가 없다는 이야기를 들은 바 있습니다. 우리는 한국의 교회들과 성서신학원에서 특별한 찬양을 들었는데, 이는 세계 어느 곳의 교회와 비교해도 전혀 뒤지지 않을 만큼 훌륭했습니다. 김영배는 요츠야 선교부의 사역자가 되기 위해 월 100엔을 받던 교직을 내려놓았습니다. 인천(진센) 교회는 종을 하나 구입했습니다. 우리가 인천을 방문했을 때는 아직 설치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호켄(방현) 교회는 최근 열정적인 성경공부(부흥회) 주간을 보냈습니다. 프로그램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오전 5시 30분과 11시, 그리고 오후 2시와 8시. 저녁 시간의 평균 참석 인원은 150명이었습니다. 북한의 다른 세 교회도 동일한 프로그램을 따랐습니다. 그들은 일 년에 두 번 이 프로그램을 진행합니다. 성경공부는 교파주의라는 질병에 처방된 약과 같습니다. 인천의 성서신학원 학생들은 새 건물 건축 비용을 마련하는 데 보탬이 되고자 수많은 면 수건을 만들어 판매했습니다. 한국의 교회들에 드려지는 헌금의 대부분은 작은 쌀 주머니들인데, 이것들을 큰 상자에 모아 격주로 판매합니다. 이것이 그들의 십일조 방식입니다. 한국에서(일본과 마찬가지로)

수많은 지교회들과 성서신학원을 세우는 목적 중 하나는 설교자가 되고 싶어 하는 수많은 청년에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사역할 기회를 주기 위함입니다. 이러한 지교회 중 일부는 번창하고 자립하는 교회로 성장합니다. 진정한 선교적 열정에 사로잡힌 한국의 우리 사역자들은 만주에 그리스도의 교회들을 세우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으며, 그곳으로 우리 성도들 중 상당수가 이주했습니다. 비록 성공하지 못할지라도 우리는 이 비전을 장려하고 있습니다. “시도해 보고 실패하는 것이 아예 시도조차 하지 않는 것보다 낫다”라는 말도 있습니다. 우리는 대만(Formosa)의 식인종(헤드헌터)들 사이에서 사역하려고 시도했으나 실패했습니다. 그 후 우리는 한국으로 눈을 돌렸고(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신 것일까요?), 그 결과는 거의 믿을 수 없을 정도입니다. 우리의 기도 동맹 모든 회원께서는 이 만주 선교의 성공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W. D. C. (출처: “Korean Notes,” *Tokyo Christian*, 1936년 5월호 2쪽).

3. 이인범 목사의 ‘동경사곡선교회 기독교회’에서의 활동(1933.9-1936.6)

요츠야 선교부의 한국선교는 1924년 5월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으나 1932년 6월 10일까지 만 8년간 조선총독부 학무국 사회과에 포교에 관련된 어떤 신고도 하지 않았다. 커닝햄은 전 조선총독 사이토 마코토 자작이 허가하였으니 합법적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다. 커닝햄은 일본에 상주하는 선교사이니 그렇다고 치더라도, 요츠야 선교부가 파견한 한국인 사역자들 가운데 아무도 만 8년간이나 포교허가를 받으려는 노력을 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을 정도이다.



성낙소 목사(1890-1964, 내수동, 필운동교회)
학문수학, 경성구세군사관학교, 경성성서학원,
횡빈(요코하마)조선인기독교회 시무
요츠야 선교부 조선포교관리자(1931.9-)
동경사곡선교회 기독교회 포교관리자(1932.6.11-
1936.1.10) [사진 AI 수정]

반면에 성낙소 목사는 일본 횡빈(요코하마)에서 돌아와 포교를 시작하려고 했을 때 포교허가를 받아야한다는 사실을 알고, 1932년 6월 11일 ‘동경사곡선교회 기독교회’란 교파명으로 포교관리자설치계를 신고하였다. 그리고 1932년에 서울의 2개 교회, 1933년에 인천의 1개 교회를 위해 포교소설치계를, 자신과 김문화 목사의 포교계를 신고하였다. 이것은 성낙소 목사가 귀국하기 전까지 요츠야 선교부의 한국선교의 8년의 결실이 너무 없었다는 것을 뜻한다. 이것은 또 커닝햄이 보고한 한국선교내용들과도 너무 달랐다는 것을 뜻한다. 신고된 내용만가지고 볼 때는 1924년부터 1935년까지 요츠야 선교부의 한국 기독교회들에는 총 3개의 교회만이 존재하였다. 이 사실을 반영하듯

이, 조선총독부통계연보 1933년도 제416표, ‘1933년(도)말 교회당 포교소 강의소 현황’에도 동경사곡선교회 기독교회는 3개로 표기되었다. 참고로 이 무렵 전주공교 327

개, 조선야소교장교회 2583개, 기독교조선감리회 814개, 성공회 87개, 로국정교회 6개, 일본기독교교회 12개, 일본메소제스트교회 7개, 제7일안식일야소재림교 129개, 동양선교회 149개, 구세군 74개, 조선기독교교회 27개, 동양선교회호리네스교회 7개, 조선회중기독교교회 26개, 기독교동신회 2개였다.

이인범 목사는 1933년 9월에 동경 심천(후카가와)조선인기독교교회를 사임하고 귀국하여 성낙소를 대신하여 포교관리자의 직책을 수행하였으나 그의 활동은 모두 불법적인 것이었다. 커닝햄은 물론 이인범 역시 포교허가를 받아야한다는 사실을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았던 것처럼 보인다. 1935년 5월에 J. 마이클 쉐리의 문제 제기가 있고 나서야 발등에 떨어진 불을 끄듯이 포교관리자변경계를 제출하려고 노력하였으나 뜻을 이루기까지 상당한 기간이 걸렸으며, 그것도 커닝햄과 전 조선총독 사이토 마코토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아야했다. 성낙소가 사직하지 않았고, 조선총독부 학무국 사회과도 까다로운 조건을 내세워 이인범의 포교관리자변경계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과정에서 윌리엄 커닝햄은 조선총독부 총독(1919-27, 1929-31)과 일본 정부 수상(1932-34)을 지낸 사이토 마코토(齋藤 実)에게 여러 차례 도움을 요청하였다. 이러한 노력 끝에 1936년 1월 10일 총독부가 성낙소를 소환하여 사직서를 쓰게 하였고, 포교관리자변경계가 제출될 수 있었다. 당시 신신군은 광주성결교회를 담임하고 있었으며, 이인범과 신신군 사이에는 이미 일정한 약속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많은 어려움을 겪은 후에 이인범은 비로소 1936년 1월 10일 동경사곡선교회 기독교회의 포교관리자 성낙소를 이인범(경기도 인천부 송현리 85의 17번지)으로 바꾸는 포교관리자변경계와 관리사무소소재지를 경기도 경성부 수창동 106번지에서 경기도 인천부 송현동 50번지로 바꾸는 포교관리사무소소재지변경계를 제출할 수 있게 되었다(「조선총독부관보」 제2752호 12면, 소화 11년 3월 18일).

이후 이인범은 7년 8개월간(지지자였던 커닝햄 사후 7년 3개월간) 합법적인 포교관리자의 직책을 수행하였다. 1943년 9월 17일 기독교회 조선선교회 구포교관리자 이인범을 신포교관리자 평산 무웅(平山武雄, 경기도 인천부 송현정 50번지)으로 포교관리자변경계가 제출되었고(「조선총독부관보」 제5020호 14면, 소화 18년 10월 26일), 13일이 지난 30일에는 평산 무웅(신신군)에 의해서 기독교회 조선선교회 이인범(경기도 서대문구 아현정 473의 6번지)의 포교폐지계가 제출되었으며(「조선총독부관보」 제5024호 20면, 소화 18년 10월 30일), 기독교회 조선선교회 아현정교회(경기도 경성부 서대문구 아현정 473의 6번지) 구포교담임자 이인범을 신포교담임자 송산 의웅(松山義雄)으로 포교담임자변경계가 제출되었다(「조선총독부관보」 제5030호 2면, 소화 18년 11월 8일).

이인범은 여러 자료를 종합해볼 때, 1943년 9월 17일까지 포교관리자로 헌신하며 신사참배와 일본기독교조선교단 가입을 끝내 거부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저항으로 인해 심한 고초를 겪었고, 결국 1943년 9월 30일 포교폐지를 당한 것으로 추정된다(「조선총독부관보」 제5024호 20면, 소화 18년 10월 30일). 1926년 그를 면직했던 동양선교회조차 1943년 12월 31일 포교폐지를 당한 상황에서, 더 이상 머물 곳이 없었던

그는 장로교회로 이적하였다. 이후 1949년 1월 3일 금산제일교회에 부임하여 목회하던 중 1950년 6월 25일 한국전쟁의 수난을 겪었고, 이듬해인 1951년 55세의 나이로 금산에서 별세하였다.

4. 이인범 목사의 ‘기독교회 조선선교회’에서의 활동(1936.7-1943.9)

이인범은 1936년 1월 10일 포교관리자변경계가 받아들여진 후 동년 7월 8일 ‘동경사곡선교회 기독교회’를 ‘기독교회 조선선교회’(경기도 인천부 송현리 50번지)로 교파명변경계를 제출하였다(「조선총독부관보」 제2883호 6면, 소화 11년 8월 21일). 이어서 9월 4일 기독교회 조선선교회 김영배(경기도 인천부 유정 30번지)와 신신근(경기도 인천부 금곡리 5번지)의 포교계를, 기독교회 조선선교회 유정기독교회(경기도 인천부 유정 4번지)의 포교소설치계와 김영배(경기도 인천부 유정 30번지)의 포교담임자선정계를 제출하였다(「조선총독부관보」 제2929호 3-4면, 소화 11년 10월 16일). 또한 이인범은 같은 날 기독교회 조선선교회 성낙소(경기도 경성부 수창정 106번지)와 김문화(경기도 경성부 원동정 8의 4번지)의 포교폐지계를 제출하였고(「조선총독부관보」 제3007호 5면, 소화 12년 1월 26일), 기독교회 조선선교회 아현기독교회(경기도 경성부 아현정 473번지)의 구설립자 성낙소를 이인범(경기도 인천부 송현리 85의 17번지)으로 포교소설립자변경계도 제출하였다(「조선총독부관보」 제3042호 6면, 소화 12년 3월 9일). 이뿐 아니라, 이인범은 같은 날 기독교회 조선선교회 이인범(경기도 경성부 아현정 473번지)의 포교계를 제출하였고, 포교규칙 제9조에 의거 기독교회 조선선교회 아현기독교회의 구포교소소재지 경기도 경성부 아현정 57번지를 경기도 경성부 아현정 473번지로 포교소소재지변경계를 제출하였다(「조선총독부관보」 제3007호 4,6면, 소화 12년 1월 26일). 이 아현정 473번지의 교회가 서울제1교회(경성교회)의 역할을 맡았고, 따라서 이곳에 1938년 서울성서훈련원을 개교시켰다가 가까운 곳의 건물 2층을 세내어 이전하였다.



김영배 전도자(1936년)
인천 유동 기독교회 개척
와세다대, 상해 성 요한대(M.A.) 졸업
기독교회 사역자가 되기 위해 다른 동료
들이 받던 급여의 4배가 넘는 월100엔을
받던 교직을 내려 놓았다.
[출처: Tokyo Christian]

1936년 12월 23일 구포교소 명칭 ‘기독교회 조선선교회 기독교회인천교회’를 ‘기독교회 조선선교회 송현기독교회’(경기도 인천부 송현정 50번지)로 포교소명칭변경계를, ‘기독교회 조선선교회 기독교회인천교회’(경기도 인천부 송현리 89번지) 구포교소설립자 성낙소를 이인범(경기도 경성부 아현정 473번지)으로 포교소설립자변경계를, 송현기독교회의 구포교소소재지 경기도 인천부 송현정 89번지를 경기도 인천부 송현정 50번지로 포교소소재지변경계를 제출하였다(「조선총독부관보」 제3143호 9면, 소화 12년 7월 8일). 그리고 5일 후인 1936년 12월 28일 기독교회 조선선교회 아현기독교

회의 구포교담임자 성낙소(경기도 경성부 아현정 473번지)를 신포교담임자 이인범(경기도 경성부 아현정 473번지)으로 포교담임자변경계를 제출하였다(「조선총독부관보」 제3019호 6면, 소화 12년 2월 9일). 이로써 이인범 목사는 1936년 말까지 성낙소 목사의 모든 업적을 자신의 것으로 돌려놓았고, 성낙소의 흔적지우기를 완료하였다.

1933년 9월에 포교관리자로 부임한 이인범이 1936년 말까지 만 3년간 성낙소 목사가 신고한 3개 교회에 추가시킨 교회는 유정기독교교회(경기도 인천부 유정 4번지) 단 한 곳뿐이었다. 따라서 커닝햄이 1936년 6월 24일 저녁 8시 45분에 암으로 사망할 때까지, 1924년 3월 말에 한국 땅에 선교기지(포교소)를 세운지 만 12년 동안 내국인 사역자들에 의해서 인천에 3개(송현동, 유동, 금곡동), 서울에 3개, 평북 구성군에 2개(방현면, 오봉면), 평북 정주군에 2개(용포동, 근담동), 대류리(황해북도 중화군?)에 1개, 경남 마산에 1개, 총12개의 교회와 12명의 사역자들이 있었다는 「도쿄 크리스천」의 보고와는 8개 교회나 차이가 있다. 이런 차이가 생긴 것은 실제로 교회가 없었기 때문이 아니라 늦장 보고하였기 때문이다. <도쿄 크리스천> 1938년 3월호가 한국에 신고 된 교회를 11개라고 보고한 것을 보아 알 수 있다. 이 보고에 의하면, 1937년 한 해 동안에만 7개 교회가 조선총독부 학무국 사회과에 제출되었다는 뜻이다. 커닝햄이 보고한 12개의 교회들 가운데, 정주군의 근담동과 대류리(황해북도 중화군?)의 교회들은 조선총독부 학무국 사회과에 제출되지 아니하였다. 또 성낙소 목사가 제출한 서울의 2개 교회들 가운데 한 곳(아현정기독교교회)만 남았고, 이난기 목사에 의해서 서울 제2교회가 개척되었기 때문에(*Tokyo Christian*, 1936년 5월호) 1936년 말까지 서울에는 2개 교회만 있었다.

요츠야 선교부의 서울 제1교회인 아현정기독교교회는 성낙소 목사가 제출한 경성교회로서 계동에서 시작되어 송4동, 수창동, 적선동으로 옮겨 다녔고, 아현정 473번지에서 가장 오랜 기간 자리를 잡았다. 평북에서는 근담동과 대류리에 세워진 포교소들의 소식이 끊어진 대신에 구성군에서 평지동기독교교회와 정주군에서 약수포기독교교회와 문인동기독교교회가 추가로 개척되었는데, 이들 가운데 평지동기독교교회와 약수포기독교교회가 조선총독부에 제출되었는지는 확인된바가 없다.

이인범은 1937년 5월 10일 기독교회 조선선교회 오봉기독교교회(평안북도 구성군 오봉면 인봉동) 포교소설치계를, 기독교회 조선선교회 장신주(평안북도 구성군 오봉면 인봉동 125번지)와 김성산(평안북도 구성군 방현면 하단동 259번지)의 포교계를 제출하였다(「조선총독부관보」 제3112호 9-10면, 소화 12년 6월 2일). 이틀 후인 5월 12일 기독교회 조선선교회 김상익(경기도 경성부 마장정 712의 3번지)과 최성진(평안북도 구성군 방현면 와룡동 427번지)의 포교계를, 기독교회 조선선교회 용포동기독교교회(평안북도 정주군 고안면 용포동 170번지)와 문인동기독교교회(평안북도 정주군 옥천면 문인동 510번지)의 포교소설치계를 제출하였다(「조선총독부관보」 제3126호 9면, 소화 12년 6월 18일).

이인범은 1937년 6월 21일 정삼선(경기도 인천부 송현정 87번지 거주)의 포교계를, 이틀 뒤인 23일 기독교회 조선선교회 금곡정교회(경기도 인천부 금곡정 48번지)의 포

교소설치계를 제출하였다(「조선총독부관보」 제3178호 10-11면, 소화 12년 8월 18일). 그리고 동년 10월 31일 기독교회 조선선교회 유정기독교회의 구포교소소재지 경기도 인천부 유정 4번지를 경기도 인천부 화정 2정목 14번지로 포교소소재지변경계를 제출 및 포교소명칭 유정기독교회를 화정기독교회로 포교소명칭변경계를 제출하였다(「조선총독부관보」 제3277호 5면, 소화 12년 12월 16일).

이인범은 1937년 11월 4일 기독교회 조선선교회 김태희(경상남도 마산부 교원동 72번지)의 포교계를(「조선총독부관보」 제3069호 4면, 소화 12년 4월 10일), 동년동월 30일 기독교회 조선선교회 이난기(경기도 경성부 아현정 429의 4번지)의 포교계를 제출하였다(「조선총독부관보」 제3019호 5면, 소화 12년 2월 9일).

이인범은 1938년 8월 22일 기독교회 조선선교회 윤낙영(경기도 경성부 흑석정 37번지)의 포교계를, 기독교회 조선선교회 영등포기독교회(경기도 경성부 영등포정 256번지), 25일 염리기독교회(경기도 경성부 염리정 3의 53번지)와 마장기독교회(경기도 경성부 마장정 712의 3번지)의 포교소설치계를 제출하였다. 또 기독교회 조선선교회 영등포기독교회에 윤낙영, 염리기독교회에 이난기, 마장기독교회에 김상익의 포교담임자선정계를 제출하였다(「조선총독부관보」 제3567호 4-6면, 소화 13년 12월 8일).

이인범은 1939년 1월 31일 기독교회 조선선교회 김태희(경상북도 대구부 덕산정 180번지)의 포교계를, 기독교회 조선선교회 덕산기독교회(경상북도 대구부 덕산정 180번지) 포교소설치계 및 김태희의 포교담임자선정계를 제출하였다(「조선총독부관보」 제3645호 2-3면, 소화 14년 3월 16일).

이인범은 1940년 3월 9일 송기준(경상남도 마산부 교원동 72의 11번지)의 포교계를 제출하였다(「조선총독부관보」 제4081호 6면, 소화 15년 8월 27일). 또 동년 3월 11일 기독교회 조선선교회 대화기독교회(경기도 인천부 대화정 109번지) 포교소설치계를, 기독교회 조선선교회 대화기독교회(경기도 인천부 대화정 109번지)에 임준식(경기도 인천부 송현정 85의 1번지)의 포교담임자선정계를 제출하였다(「조선총독부관보」 제3956호 5-6면, 소화 15년 3월 30일). 또 이날 기독교회 조선선교회 임준식의 포교계를 제출하였다(「조선총독부관보」 제3967호 6면, 소화 15년 4월 13일). 수일 후인 3월 15일 기독교회 조선선교회 신마산기독교회(경상남도 마산부 선정 60번지), 구마산기독교회(경상남도 마산부 상남동 269의 1번지), 북마산기독교회(경상남도 마산부 교동 72의 10번지)에 포교소설치계를 제출하였고(「조선총독부관보」 제4054호 3면, 소화 15년 7월 26일), 기독교회 조선선교회 신마산기독교회에 송기준의 포교담임자선정계를 제출하였다(「조선총독부관보」 제4058호 15면, 소화 15년 7월 31일). 그리고 1940년 8월 19일 기독교회 조선선교회 대흥정기독교회(경기도 경성부 대흥정 36의 19번지)의 포교소설치계를 제출하였다(「조선총독부관보」 제4087호 3면, 소화 15년 9월 3일).

이인범은 1941년 4월 1일 발효된 종교법으로 인해서 요츠야 선교부로부터 지원이 완전히 끊긴 1942년 2월 1일에도 기독교회 조선선교회 현천기독교회(경기도 고양군 신도면 현천리 23번지) 포교소설치계를 제출하였다(「조선총독부관보」 제4520호 2면,

소화 17년 2월 23일).

그리고 1943년 9월 17일 기독교회 조선선교회 구포교관리자 이인범을 신포교관리자 평산 무웅(경기도 인천부 송현정 50번지)으로 포교관리자변경계가 제출되었다(『조선총독부관보』 제5020호 14면, 소화 18년 10월 26일). 그리고 신포교관리자인 평산 무웅에 의해서 1943년 9월 30일 기독교회 조선선교회 이인범(경기도 서대문구 아현정 473의 6번지)의 포교폐지계가 제출되었고(『조선총독부관보』 제5024호 20면, 소화 18년 10월 30일), 기독교회 조선선교회 아현정교회(경기도 경성부 서대문구 아현정 473의 6번지) 구포교담임자 이인범이 신포교담임자 송산 의웅으로 포교담임자변경계가 제출되었다(『조선총독부관보』 제5030호 2면, 소화 18년 11월 8일).

이인범 목사가 기독교회 조선선교회를 떠난 이후에도 평산 무웅에 의해서 1944년 9월 30일 기독교회 조선선교회 유지옥(경기도 경성부 서대문구 염리정 3의 89번지)의 포교계(『조선총독부관보』 제5352호 3면, 소화 19년 12월 6일), 기독교회 조선선교회 염리정교회(경기도 경성부 서대문구 염리정 3의 53번지) 구포교담임자 이난기를 신포교담임자 유지옥으로 포교담임자변경계(『조선총독부관보』 제5353호 2면, 소화 19년 12월 7일) 및 기독교회 조선선교회 염리정교회에 유지옥(경기도 경성부 서대문구 염리정 3의 85번지)의 포교담임자선정계가 제출되었다(『조선총독부관보』 제5355호 2면, 소화 19년 12월 9일).

이인범 목사는 경성성서학원을 졸업한 1920년 동양선교회 성결교회에서 목회를 시작했으나, 6년 뒤인 1926년에 면직되었다. 이후 일본으로 건너가 도쿄 요츠야 선교부를 통해 1927년 8~9월경 삼하도(미카와시마) 조선인기독교회 선교기지에서 사역을 시작하였다. 이어 1929년 11월부터 1933년 8월까지 약 4년 동안 동경 심천(후카가와) 조선인기독교회 제1대 담임목사로 섬겼다. 그는 요츠야 선교부 대표 선교사 윌리엄 D. 커닝햄의 깊은 신임을 받아 1933년 9월 조선포교관리자로 파송되었고, 1943년 9월 17일까지 만 10년간 헌신하였다. 그러나 일제 말기 신사참배와 일본기독교조선교단 가입에 반대하면서 큰 고초를 겪었고, 결국 포교 폐지를 당한 것으로 추정된다. 그의 포교폐지계는 1943년 9월 30일자로 제출되었다. 포교 폐지 이후 더 이상 오갈 곳이 없게 된 그의 마지막 행적은 금산제일장로교회 연혁에서 확인된다. 1926년 그를 면직했던 동양선교회조차 1943년 12월 31일 포교폐지를 당한 상황에서 어쩔 수 없는 선택지였을 것이다. 이인범은 1949년 1월 3일 금산제일교회에 부임하여 목회하던 중 1950년 6월 25일 한국전쟁의 수난을 겪게 되었고, 이듬해인 1951년 55세의 나이로 금산에서 별세하였다.

참고문헌

Tokyo Christian: 『조선총독부관보』; 『기독교의 교회와 성낙소와의 관계』(오수강, 필운동 그리스도의 교회, 2007); 『조선 예수교 동양선교회 성결교회 역사』(이명직, 1929); 『조선총독부 기록으로 본 한국 그리스도의 교회』(조동호, 그리스도의교회연구

소, 2016: <http://kccs.info/조선총독부 기록으로 본 한국 그리스도의 교회.pdf>); 『한국 그리스도의교회의 역사』(백종구, 조동호, 쿤란출판사, 2018); 『한국 그리스도의 교회 이야기』(조동호, 그리스도의교회연구소, 2017: http://kccs.info/그리스도의교회이야기_증보판20181113.pdf); 『한국 그리스도(인)의교회들 초기 50년사(1924-1974)』(조동호, 도서출판 끝림, 2023).

이원균(李元均) 목사



이원균 목사(1887-1969.12.06)
평북 구성군 방현 그리스도의 교회 목회자
[출처: Tokyo Christian]

이원균(1887-1969.12.06.) 목사는 1887년 함경남도 북청에서 출생하여 어려서 한학을 공부하였다. 청년기에 기독교 복음을 듣고 예수를 구주로 영접한 그는 경성성서학원을 중퇴한 뒤, 38세 무렵 일본 도쿄에서 요츠야선교부(Yotsuya Mission)의 윌리엄 커닝햄(William D. Cunningham) 선교사를 만나게 되었다. 당시 그는 이미 세 자녀의 아버지였다. 윌리엄 D. 커닝햄은 1923년에야 한국 선교기지 설립을 위한 후원자를 얻었고, 1924년 3월 말 한국에 선교기지를 세우기 위한 예비 작업을 진행하였다(「도쿄 크리스천」, 1924년 3월호). 그해 10월, 박제곤이 부친의 반대로 사역을 중단하자(「도쿄 크리스천」, 1927년 7월호), 요츠야선교부는 이원

균을 서울 그리스도의 교회 선교기지(포교소)에 파송하였다.

이원균은 1924년 10월부터 1927년 초까지 서울에서 사역하며 일요학교들을 세우는 등 기독교회 선교기지의 기초를 놓았다. 그러나 신학을 마무리하기 위해 1927년 중반 사임하고 경성성서학원에 복학하였다. 복학직후 동양선교회로부터 이원균의 포교담임 자변경계가 1927년 11월 3일 제출되고(「조선총독부 관보」 9면, 1928년 1월 12일), 포교폐지계가 1928년 5월 1일 제출된 것으로 보아 이원균은 1927년 전반기까지 동양선교회 김천성결교회(경상북도 김천군 김천면 남산정 34의 8번지)에서 목회하다가 사임한 것으로 보이며(「조선총독부 관보」 4면, 1928년 7월 5일), 요츠야선교부는 그가 신학을 마칠 때까지 경제적 후원을 지속하였다(「도쿄 크리스천」 1934년 2월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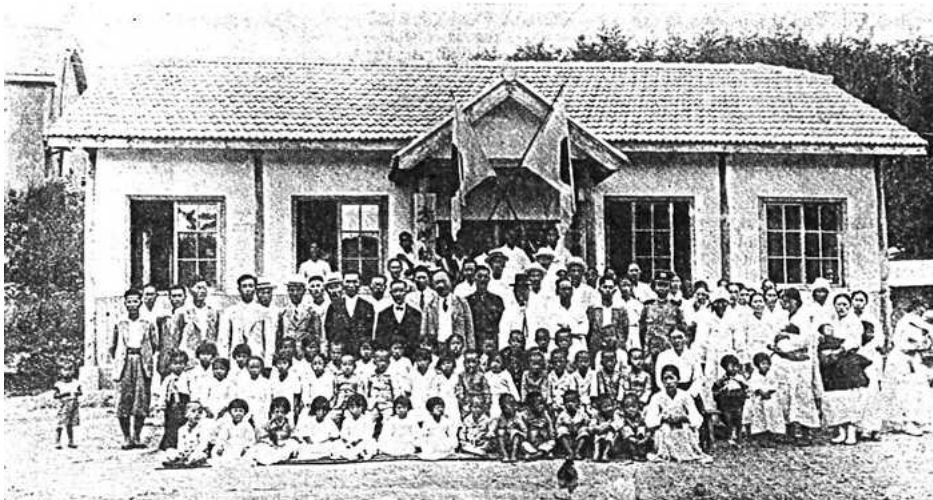


평북 구성군 방현 그리스도의 교회 예배당(1935년) [출처: Tokyo Christian]

신학을 마친 이원균은 1932년 말 혹은 1933년 초 평안북도 구성군 방현기독교회로 파송되었다(「도쿄 크리스천」 1933년 7월호 및 1936년 2월호). 1932



평북 구성군 방현 그리스도의 교회(1936년)
교인 173명, 장로 3명, 집사 7명. 토마스 핏치(뒷줄 중앙), 이원균(핏치 좌측), 김영배(통역, 핏치 우측), 이인범(김영배 우측), Y. D. Cheh(우측 앞줄 양복차림, 장로, 내과의사), R. R. Cheh(Y. D.의 아들, 우측 뒷줄 양복차림, 장로, 내과의사) [출처: Tokyo Christian]



방현 그리스도의 교회 유치원(1937년)_인원 50명[출처: Tokyo Christian] (미카와시마)

조선인기독교교회로 옮길 때까지 4년 반 동안 구성군 방현교회, 오봉교회, 평지동교회, 정주군 용포동교회, 문인동교회, 약수포교회, 근담동교회, 그리고 평남 중화군 대류리교회 등 여러 교회가 기독교회(그리스도의 교회들)로 자리 잡는 데 크게 기여하였다. 방현기독교교회에는 채(혹은 최)씨 성을 가진 내과의사 부자(父子) 장로가 있었고, 아들 채(Dr. R. R. Cheh) 장로는 선교부에 서신을 보내 이원균 목사에게 감사와 만족을 표했으며, 아버지 채(Y. D. Cheh) 장로도 선교사 방문을 요청하였다. 선교부는 사례비의 절반을 부담했고, 목회 반경이 30km에 이르던 이원균에게 자전거를 제공하였다.

한편 윌리엄 커닝햄은 한국 선교보다 빠른 1923년 일본 미카와시마(삼하도), 후카가와(심찬), 요코하마(횡빈)에도 한국인들을 고용해 조선기독교교회들을 세웠으며, 1927년 일본 도쿄 요츠야 선교부에 선교사로 입국해 1934년 해임된 존 채이스(John T. Chase)는 요츠야 선교부에서 7년 8개월간 사역하며 이원균, 이인범, 성낙소 등 여러

년 여름, 요츠야 선교부 산하 심찬(후카가와)조선인기독교교회의 담임목사 이인범이 방현에서 부흥집회를 인도하며 많은 이들에게 침례를 베풀었고, 그해 장로교회였던 방현 교회가 요츠야 선교부에 목회자 파송을 요청한 것이 계기였다. 이원균은 1933년 초 부임하여 1937년 5월 자녀 교육을 위해 도쿄 삼하도



이원균 목사(1934년 12월 13일)
(도쿄 요츠야선교부가 선물한 자전거)
[출처: Tokyo Christian]

한국인들과 접촉하였다(『도쿄 크리스천』, 1931년 11월호). 채이스는 1931년 한국을 방문해 서울의 기독교회들과 주일학교들을 확인하였다. 당시는 성낙소가 요코하마 사역을 마치고 조선기독교회 포교책임자로 귀국한 직후였다.

이원균은 1937년 5월부터 태평양전쟁이 발발할 때까지 도쿄 삼하도조선인기독교회에서 목회하였다. 그러나 1941년 1월 21일, 그는 일본인 목회자 4명과 심천조선인기독교회의 이성영 목사와 함께 선교부의 강경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일본기독교단’ 가입을 강하게 주장하여 결국 가결시켰다(『도쿄 크리스천』, 1941년 4월호). 이 결정은 해외 선교후원을 금지하는 종교법이 1941년 4월 1일 시행되기 두 달 전의 일이었다.

종교법 시행과 태평양전쟁의 격화로 인해 선교사들은 모두 강제로 귀국해야 했고, 선교부의 재정 지원도 중단되었다. 일본 내 조

선인 공동체 역시 전쟁 상황 속에서 귀국하거나 흩어지게 되었다. 한편 동경복음교회는 교회 소개란에서 오다 나라지(전영복) 목사가 1940년 이원균의 뒤를 이어 제6대 목회자가 되었다고 기록하고 있으나, 실제로 이원균이 교회를 사임한 시점은 1941년 말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이는 선교부가 일본 철수 직전에 1941년분 교회지원금과 목회자 사례비 전액을 이미 지급한 사실과도 부합한다.

이원균이 귀국 후 평북 구성으로 돌아갔는지는 확인되지 않는다. 선교사들이 철수한 이후 일본과 한국의 교회 소식은 거의 단절되었고, 『도쿄 크리스천』 역시 이후 관련 내용을 전혀 다루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한국침례교 인물사』에 따르면 그는 1955년 침례교단으로 이적하기 전까지 평양신학교 이사장과 예수교 장로회 함남노회장을 역임하였다. 이 시기에 그는 『율법과 복음』을 저술했는데, 이는 비교파 신약성경기독교를 위해 20여 년간 헌신하며 커닝햄에게 ‘한국의 갈렙’, ‘한국의 발톤 스톤’, ‘한국의 알렉산더 캠벨’이라 불렸던 자신의 사역을 사실상 부정하는 내용이었고, 알렉산더 캠벨이 1816년 레드스톤 침례교협의회에서 행한 ‘율법에 관한 설교’와는 상반된 입장이었다. 결과적으로 이원균은 비교파 신약성경교회에서 침례교단으로, 알렉산더 캠벨은 침례교단에서 비교파 신약성경교회로 이동하며 서로 반대 방향의 길을 걸었다.

이원균은 1955년 침례교로 이적하여 부산 충무로침례교회를 담임하였고, 침례교 총회에서 두 차례 교육부장을 역임하였다. 고령에도 대한침례교신학교에서 학생들을 가

르쳤으며, 1966년에는 신학교 교장으로 봉직하였다. 그는 1969년 12월 6일 향년 82세로 별세하였다.

이원균 목사의 생애는 한국 기독교 초기 선교의 복잡한 교단 관계, 일제 말기 종교 정책, 해방 후 교단 재편, 그리고 침례교 성장 과정을 모두 관통하는 중요한 사례로 평가된다. 그는 성결교 신학에서 출발하여 그리스도의교회 신학을 거쳤고, 장로교 신학을 경험한 뒤 결국 침례교에 정착하였다. 이러한 신학적 이동은 단순한 교단 변경이 아니라, 한국 기독교가 겪은 격동의 시대적 상황과 긴밀히 연결되어 있다.

그리스도의교회와 침례교는 교파주의 반대, 성경 중심성 등 여러 면에서 공통점을 지니지만, 칼뱅주의 수용 여부에서는 뚜렷한 차이를 보인다. 펜윅 역시 교파 명칭 대신 ‘기독교회’라는 이름을 고집했기에 두 전통은 외형적으로도 유사한 면이 있었다. 이원균은 펜윅의 가르침을 접하며 “고민하던 의문점들이 하나씩 풀려지면서 가슴이 후련해졌다”고 회상했지만, 펜윅은 침례교회를 세운 적이 없었고, 그가 한국에서 개척한 교회들도 그의 생전에는 침례교회로 규정되지 않았다.

이원균은 이후 『율법과 복음』에서 칼뱅주의적 색채를 드러내며 그리스도의교회와는 다른 신학적 방향을 선택하였다. 그의 이러한 이동은 단순히 교리적 확신에서 비롯되었다기보다, 일제 말기의 종교 통제, 선교사 철수, 교단의 해체와 재편 등 시대적 아픔 속에서 불가피하게 선택해야 했던 길이었을 가능성이 크다. 결국 그의 생애는 한 개인의 신학적 여정이자, 한국 기독교가 격변기 속에서 어떤 방식으로 정체성을 찾아갔는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역사적 단면이라 할 수 있다.

참고문헌

Tokyo Christian, Mar.1924년; Jul.1927; Nov.1931; Apr.1933; Jun.1933; Jul.1933; Oct.1933; Nov.1933; Dec.1933; Feb.1934; Jun.1934; Oct.1934; Nov.1934; Jan.1935; Feb.1935; Oct.1935; Feb.1936; Dec.1936; Jan.1937; Apr.1941; 동경복음교회 교회소개(<https://ect1924.org/churchinfo/>), 「조선총독부 관보」 1928.1.12.; 1928.7.5.; 『조선총독부 기록으로 본 한국 그리스도의 교회』(조동호, 그리스도의교회연구소, 2016: <http://kccs.info/조선총독부 기록으로 본 한국 그리스도의 교회.pdf>); 『한국 그리스도의교회의 역사』(백종구, 조동호, 쿤란출판사, 2018); 『한국 그리스도의 교회 이야기』(조동호, 그리스도의교회연구소, 2017: http://kccs.info/그리스도의교회이야기_증보판20181113.pdf); 『한국 그리스도(인)의 교회들 초기 50년사(1924-1974)』(조동호, 도서출판 끌림, 2023); 『한국침례교 인물사』(김갑수, 요단출판사, 2007).

김상준(金相濬) 목사



김상준 목사 가족

<도쿄 크리스천> 1933년 12월호에 요츠야선교부 제7교회(조선인)의 목회자요, '조선인성서훈련원'(Korean Bible Training School)의 원장이었던 김상준 목사가 한국에서 10월 12일 사망하였다는 부고가 실렸다.

김상준 목사의 사망 소식에 깊은 슬픔을 느낀 이들 가운데에는 성낙소 목사도 포함된다. 성낙소 목사는 일본 횡빈(橫濱, 요코하마) 조선인 기독교회(그리스도의 교회)에서 교역자로 섬기던 시절, 도쿄 심천(深川, 후카가와) 조선인 기독교회의 교역자였던 이인범 목사와 함께 도쿄 삼하도(三河島, 미카와시마) 조선인 기독교회의 새 교역자로 김상준 목사를 천거한 인물이었다.

김상준은 한국 성결교회의 제1대 목사이자 교단 창시자 가운데 한 사람이었으나, 비교파운동에 뜻을 품고 일찍이 교단을 떠나 독립적·초교파적 부흥회를 이끌어 온 인물이었다. 이러한 그의 행보는 구세군 사관직을 내려놓고 신약교회기독교 운동에 뛰어든 성낙소가 깊이 존경할 만한 것이었으며, 성낙소 자신도 경성성서학원 출신이었다.

이인범 역시 경성성서학원에 입학한 첫해에 한두 학기 정도는 김상준에게 직접 배웠던 것으로 여겨진다(「도쿄 크리스천」 1931년 9월호).



김상준 목사 환영예배(1931년 7월 5일 도쿄 삼하도조선인기독교회) 존 채이스(중앙), 우측에 김상준, 좌측에 이인범, 그좌측에 류재현(이상 목사)

안 연합부흥집회를 개최하였다고 하였다. 「도쿄 크리스천」에 따르면, 김상준은 1931년 7월 1일에 부임하였고, 7월 5일에 환영예배를 드렸으며, 7월 20-30일 기간에 재일조선기독교회 관동연합하기수양회를 개최하였다. 집회는 새벽기도회(4:30), 성경공부(오전 9-12시, 오후 2-4시) 및 저녁집회(8-9시)로 진행되었다. 출석인원은 평균 40여명이었고 9명의

성낙소는 <자서전>에서 김상준 목사가 삼하도 교회에 부임하자마자 김상준을 강사로 도쿄와 횡빈(橫濱)의 조선인 기독교회들이 삼하도 기독교회에서 2주간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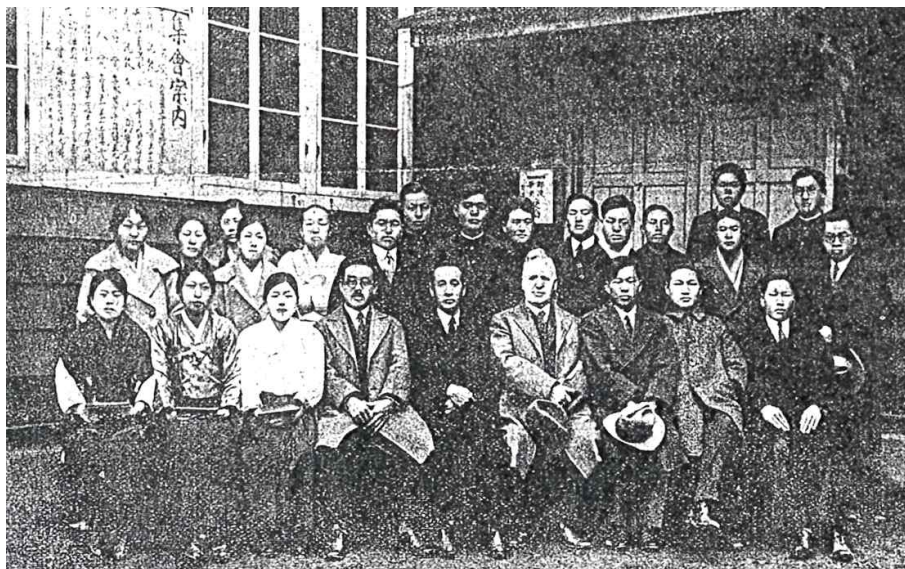


제일 조선인 기독교회(그리스도의 교회들) 관동 연합 하기 수양회(1931년 7월 30일) 김상준 목사가 1931년 7월 1일 도쿄 삼하도기독교회에 부임한 직후 개최한 연합집회

결신자가 있었다. 이 집회는 9일간 지속되었으며, 동일한 집회가 성낙소 목사가 시무하는 횡빈기독교회에서도 연이어 열렸다(「도쿄 크리스천」 1931년 10월호).

김상준 목사는 1931년 도쿄 삼하도기독교회

에 부임한 뒤, 그곳에서 시무하던 중 9월 21일 '조선인성서훈련원'(Korean Bible Training School)을 개교하여 약 1년 6개월 동안 원장으로 섬겼다. 한편 「도쿄 크리스천」 1933년 5월호 기사에 따르면, 이(Lee C. H.) 목사가 요츠야선교부 제7교회인 도쿄 삼하도조선인기독교회의 교역자로 부임하여 4월 2일 오후에 환영회를 가진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이를 근거로 볼 때, 김상준 목사는 1933년 3월경, 즉 부임 후 약 1년 9개월 만에 사임하고 귀국한 것으로 추정된다.



조선인성서훈련원(1931년말-32년초) 윌리엄 커닝햄(William D. Cunningham)과 교장 김상준 목사(커닝햄 좌측)

성낙소는 1931년 9월 중순경에 조선기독교회(한국 그리스도의 교회) 포교책임자로 임명받고 귀국할 때에 경성부 근에 신학교를 세우기로 김상준 목사님과 내약했었다고 다음과 같이 적었다.

성낙소 자신은 먼저 귀국하여 경성에서부터 각 지방까지 교회를 설립할 테니, 김 목사님은 추후로 귀국하시어 신의주로부터 부산까지 전 조선 각 교회 중 200명 이

상 집회하는 곳에 교파를 막론하고 부흥사경회를 하도록 기독교신보와 활천잡지(活泉雜誌)에 광고하여 김상준 목사를 강사로 초빙하자고한 후 전 조선을 통과하여 은혜를 받은 자들에게 매 1인당 1원씩을 헌금하도록 하여 경성부근에 야지(野地) 만평가량을 매수(매 평당 가격 3전)하여 우리 손으로 신학교를 건축하고(왕하 6:14), 김 목사님이 교장이 되시고, 동지자들을 청하여 교수하고, 기타는 신학교 선생을 강사로 시간 교수하도록 하며, 양계, 양돈, 양봉, 양어, 야채농, 과수원, 화초재배, 우유목장 등을 신학생들에게 가르치고 실습하여 기숙, 식사하도록 하여 졸업 후에는 각지 농촌교회를 교역하되 농촌개량운동에 정말국(丁抹國)과 같이, “첫째 하나님을 사랑하고, 둘째 토지를 사랑하고, 셋째 가정을 사랑하는 기독교의 교회가 되어 영적 신앙과 육적 생활을 보존하여 삼천리강산을 복음화 합시다!”한즉, 김상준 목사님은 희색이 만연하면서 감사한 뜻과 감격한 어조로 “나의 평생소원과 포부의 복안을 발생하시니, 나는 그대로 순종하겠습니다. 성 목사님이 선차 귀국하시어 착수하시면 오역종차 거의(吾亦從此 去矣)하리라” 하시며 우수로 성의 우수를 견고한 약속의 표시로 유력(有力)하게 착수(着手)하시고 작별하였다.

또 성낙소 목사는 김상준 목사가 소천할 당시의 상황을 이렇게 적었다.

성은 김상준 목사를 신앙의 동지로 신뢰하고 이상의 약속을 성취키 위하여 분투하던 중에 ... 뜻밖에 하루는 외출하였다가 해가 저물어 귀가 한 즉, 어떤 신학생이 명함을 주고 갔다 하여 실인이 명함을 주기로 취견(取見)하니, 동지 김상준 목사의 명함이라. 내용은 명일 9시에 성서학원으로 오시어 나의 신병이 위중하니 성형이 진찰 처방하여 귀가하는 대로 치료해 주시오라 하였다.

다음날 1시간 전 8시에 달려갔다. 명함을 전달한 학생 최 집사라는 형제를 찾아 김상준 목사님의 숙소를 물으니, 오계 동제(五階 東齊) 7호실이라 하여 올라가 본즉 빈방이었다. 누구에게 묻고자 하나 그 시간은 성결교회 연회중이라 대 강당에 모여 있어 한 사람도 볼 수가 없었다. 아래층에 내려와서 누구에게 물은즉 “네. 김 목사님의 병증세가 야간에 악화 위급하시어 7시경에 경성역으로 갔는데, 8시 급행차로 귀가하신다고 하셨는데, 조금 전에 발차 기적성이 들렸으니, 이제는 멀리 가셨을 겁니다.”라고 한다. 성은 낙심천만으로 귀가하였다.

김상준 목사님은 가자마자 본택에서 별세하였다. 그 후 소식을 듣건대 동경에서 성과 결탁한 약속을 실현할 용기를 가지고 귀국하여 기독교신보와 활천잡지에 부흥강사 초빙광고를 내고, 안동현(安東縣) 조선인 교회에서부터 신의주 선천, 정주까지 쉬지 않고 계속 부흥회를 하신 바, 노쇠한 몸으로서 하루도 쉬지 않고 노력하므로서 신체는 부지중에 극도로 쇠약하여 초기에는 소변색이 적황이더니, 얼마 후에는 소변 출혈이 되어 기력탈진으로 즉시 상경하여 성목사의 의학의 특수기술을 알고 진찰하려는 것과 적회(積懷)를 설화(說話) 하고자 한 것. 병세가 급전악화(急轉惡化)함으로 자기 생명이 시간문제임을 자각하고 이날 급행차로 귀가치 않으면 객사할

것 같아서 귀가한 것이다.

얼마 후에 경성 무교동 성결교회당에서 고 김상준 목사 추도식을 갖는다는 소식을 듣고 정각에 참석하였다. 그 교회는 고 김상준 목사님이 창설한 것이요, 성결교회를 조선에 시작한 원로자 중 1인인 고로 이 단체에서 이 교회당에서 추도식을 하였다. 성군은 말석에서 무언의 추도와 추억을 하면서 부지중에 뜨거운 눈물이 쏟아짐을 금치 못하였다.

동경 약속은 중대하지만, 그렇게 무리하게 노력한 것이 원망스럽기도 하고 기독교의 교회 신학교 설립할 동지자를 상실한 것이 더욱 애달파서 낙망 중에 빠졌다. 얼마간은 무위적(無爲的) 상태로 지내다가 묵상과 기도 중에 하나님께서 상사(喪事)라면 낙망할는지 모르거니와 김목사가 상사한 것으로 낙망하는 것은 생존하신 하나님을 의심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자각이 생겨 하나님이 동역하심을 견고히 신앙하고 용기를 회복하고 용전분투하였다.

최규명 목사(성결교회 역사자료연구소장)의 ‘김상준(金相濬) 목사의 생애와 신학’을 비롯한 <월간 조선>, <크리스천투데이>, <뉴스앤조이>, <크리스천데일리뉴스> 등에 실린 인터넷 기사들을 종합해 볼 때, 김상준은 1881년 11월 11일, 평안남도 용강군 오신면 구룡리에서 부친 의성 김씨와 모친 진주 강씨 사이에서 외아들로 태어났다. 1897년에 그는 연안 이씨의 이성녀와 결혼하여 1남 6녀를 두었다.



정빈 전도자(좌)와 김상준 목사(우) 김상준이 그리스도인이 된 것은 만20세 때인 1901년 평양에서였다. 부모의 심부름을 갔다가 집회에 참석하여 은혜를 받고 예수님을 영접하였던 것이다. 부친은 외아들 김상준을 명석말이할 정도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을 완강히 반대하였으나 오히려 김상준은 상투를 자르고 제사를 폐하였다. 그리고 일본으로 건너가 1905년 4월에 동경성서학원에 입학하였다. 1905년 6월에 정빈(鄭彬), 1906년에 이장하, 김혁준, 강태온 등도 입학하였다. 그리고 1905년 11월에 일본에서 동양선교회가 조직되었다.

1907년 5월 2일에 귀국한 김상준은 정빈과 함께 5월 30일부터 서울 종로 염곡에 정빈을 주임으로 한 ‘조선야소교 동양선교회(The Oriental Missionary Society) 복음전도관’(현 중앙성결교회)을 세워 복을 들고 거리로 나가 사람들에게 “예수를 믿기만 하오. 예수를 믿기만 하오”라고 외치면서 노방전도에 힘썼다.

1911년 3월에는 복음전도관 내에 경성성서학원이 개교되었고, 이듬해 3월에는 아현동으로 옮겼다. 김상준과 정빈은 복음전도관 활동은 물론 이곳에서 학생들을 가르쳤다. 1914년 4월 22일 김상준은 이장하, 강태온, 이명직, 이명현과 함께 목사안수를 받고 조직교회로서의 첫발을 내딛는데 동참하였으나 복음전도관이 교파로 발전하는 것에 반대한 정빈은 안수를 받지 않았다.

정빈은 황해도 해주 출생으로써 10세부터 고향에서 예수님을 믿었으며, 1908년 8월에 동양선교회 카우만(C. E. Cowman)의 내한 때 주례를 부탁하여 결혼식을 올렸다. 정빈은, 추정컨대 동양선교회의 교파화문제로, 1914년 9월 30일 김상준과 의견충돌을 일으켰고, 킬버른(E. A. Kilbourne)의 중재와 김상준의 사과에도 불구하고 칠판에 12개 조문을 기록한 채 성결교회를 사직하고 북간도로 건너가 말콤 펜윅(Malcolm. C. Fenwick)의 대한기독교회(동아기독교, 기독교침례회의 전신)에서 활동하다가 1917년 복직하여 안성성결교회(「조선총독부 관보」 제1708호 4면, 1918년 4월 19일)와 1919년 인천성결교회를 개척하여 섬겼다(「조선총독부 관보」 제1946호 8면, 1919년 2월 4일). 이후 정빈은 복음전도관이 '조선예수교동양선교회 성결교회'라는 교단조직으로 1921년 9월에 개편되기 6개월여 전 다시 사직하고 북간도(용정)로 떠났다. 이에 동양선교회는 동년 4월 29일 정빈의 포교폐지계를 제출하였다(「조선총독부 관보」 제2646호 4면, 1921년 6월 7일). 정빈은 용정에서 동아기독교에 소속되어 용정교회를 섬기며, 이종덕(李鍾德) 감독의 권유로 종성동에 세워져 3년간 운영된 종성동성경학원에서 가르쳤다(김용해, 『대한 기독교 침례회사』 대한기독교침례회총회, 1964, 38쪽). 이후의 행적에 대해서는 알려진 것이 없다.

김상준은 목사안수를 받은 이후 1916년까지 경성성서학원의 교수와 원감직을 수행하면서 1914년 중앙(염곡)복음전도관 주임, 1915년 아현복음전도관 주임, 1916년 개성복음전도관 주임으로 있다가 1917년에 사직하고 동양선교회 복음전도관을 떠나 비교파 또는 초교파적인 부흥목사로 활동하였다. 1919년에는 독립운동으로 인해서 평양형무소에서 1년간 옥고를 치렀다. 1920년에는 이장하도 목사직을 사임하고 해외로 유랑하였다.

조선총독부 관보에 따르면, 1915년(대정 4년) 12월 26일 경기도 경성부 죽첨정 3정목 518번지에서 포교계가 처음 제출되었으며(「조선총독부 관보」 제1429호 7면, 1917년 5월 11일), 1916년 10월 8일에는 경기도 개성군 송도면 경정 165번지로 포교자 거주지 이전계가 제출되었다(「조선총독부 관보」 제1435호 5면, 1917년 5월 18일). 이어 1917년 5월 15일에는 포교담임자를 강태온에서 김상준으로 변경하는 포교담임자 변경계가 보고되었다(「조선총독부 관보」 제1458호 5면, 1917년 6월 14일). 그리고 동년 1917년 11월 20일 김상준에서 박영순(朴瑩淳)으로 포교담임자변경계가 제출되었다(「조선총독부 관보」 제1634호 4면, 1918년 1월 19일)

이후 김상준 명의의 포교 폐지계가 두 차례 제출되었다. 첫 번째는 동양선교회(개성복음전도관)가 1918년 1월 7일자로 신고한 것으로, 「조선총독부 관보」 제1640호(1918년 1월 26일) 9면에 실려 있다. 한편 개성(송도)복음전도관은 1922년 6월경 약 30명의 신자를 '미 남감리교회'에 넘기고 교회를 폐지하였다. 그런데도 1923년 3월 13일에는 개성 남감리교회(경기도 개성군 송도면 고려정 194-1)가 다시 김상준의 포교 폐지계를 신고하였으며, 이는 「조선총독부 관보」 제3197호(1923년 4월 11일) 8면에 게재되었다.

이 무렵 김상준은 여러 기관에서 강연자로 초청받아 활동한 흔적이 동아일보 기사

에 나타난다. 1920년 7월 12일 사립 광선학교(光宣學校)에서 열린 여자기독교청년회 강습회에서는 “기독교의 향기를 풍기는 여자가 되라”는 연제로 사자와 같은 기백을 토하며 대활극을 보여주었다”고 보도되었고(『동아일보』 4면, 1920년 7월 22일), 1921년 8월에는 개성 남감리교회 동·서·남·북 3부 교회가 주최한 하계 연합 대전도회에서 8일 ‘최상의 상리(장사 이익)’, 13일 ‘동정의 눈물’이라는 제목으로 강연하였다(『동아일보』 4면, 1921년 8월 14일). 또한 1923년 7월 중앙기독교청년회 일요강화회에서도 ‘인격의 광(빛)’이라는 제목으로 강연한 기록이 남아 있다(『동아일보』 3면, 1923년 7월 15일).

호주성산성결교회 임운규 목사는 이들이 성결교회를 떠난 이유를 ‘동양선교회’의 비교파적 정신을 버리고 “기존 교단들과 같이 목사라는 성직제도와 교단조직을 가진 기존 교단, 즉 제도화된 전통교회의 성격을 지니게” 된 때문이라고 추정하였다. 김상준 목사가 일본의 ‘비교파’(non-denominational), ‘오직 그리스도인’(Christians only), ‘신약성서기독교’(New Testament Christianity)를 주창하는 그리스도의 교회의 초빙을 받아드려 도쿄 삼하도 조선인기독교회를 1931년 7월 1일부터 1933년 3월까지 섬긴 것은 동일한 정신을 공유한 때문이었을 것이다.

김상준 목사는 성결교회를 떠난 후 『묵시록강의』(1918), 『사중교리』(1921) 및 『다니엘서 강의』(1932)를 저술하였다. 성결교회의 대표적 교리인 ‘4중 복음’(중생, 성결, 신유, 재림)은 김상준 목사가 쓴 『사중교리』에 힘입은 바가 크다.

김상준 목사는 당뇨병과 과로로 인해서 향년 52세로 1933년 10월 12일에 별세하였다.



요츠야선교부 사역자대회(1932년)
뒷줄 중앙에 선 몇몇 사람들이 김상준 목사, 이인범 목사를 비롯한 한국인 사역자들이다.

참고문헌

Tokyo Christian, Sep.1931; Oct.1931; May.1933; Dec.1933; 『동아일보』 1920.7.22., 4면; 1921.8.14. 4면; 1923.7.15., 3면; 『조선총독부』 1917.5.11;

1917.5.18.; 1917.6.14.; 1918.1.19.; 1918.1.26.; 1918.4.19.; 1919.2.4.; 1921.6.7.; 1923.4.11.; 『대한 기독교 침례회사』(김용해, 대한기독교침례회총회, 1964); 『기독교의 교회와 성막소와의 관계』(오수강, 필운동 그리스도의 교회, 2007); 『조선 예수교 동양 선교회 성결교회 약사』(이명직, 1929); 『조선총독부 기록으로 본 한국 그리스도의 교회』(조동호, 그리스도의교회연구소, 2016: <http://kccs.info/조선총독부 기록으로 본 한국 그리스도의 교회.pdf>); 『한국 그리스도의교회의 역사』(백종구, 조동호, 쿤란출판사, 2018); 『한국 그리스도의 교회 이야기』(조동호, 그리스도의교회연구소, 2017: http://kccs.info/그리스도의교회이야기_증보판20181113.pdf); 『한국 그리스도(인)의 교회들 초기 50년사(1924-1974)』(조동호, 도서출판 끌림, 2023).

신신근(申新根)목사



신신근 목사
인천 송현기독교교회(1936년)
[출처: Tokyo Christian. AI 수정]

동양선교회는 1933년 1월 30일 경기도 광주성결교회의 포교자로 신신근(경기도 광주군 경안면 경안리)의 포교계를 신고하였다(「조선총독부관보」 제1881호 8면, 소화 8년 4월 19일). 이어 2월 10일에는 광주성결교회 구포교담임자 김정호를 실포교담임자 신신근으로 변경하는 포교담임자변경계를 신고하였다(「조선총독부관보」 제1856호 5면, 소화 8년 3월 18일). 포교계가 먼저 신고된 점을 고려하면, 광주성결교회가 신신근의 첫 부임 목회지였던 것으로 추정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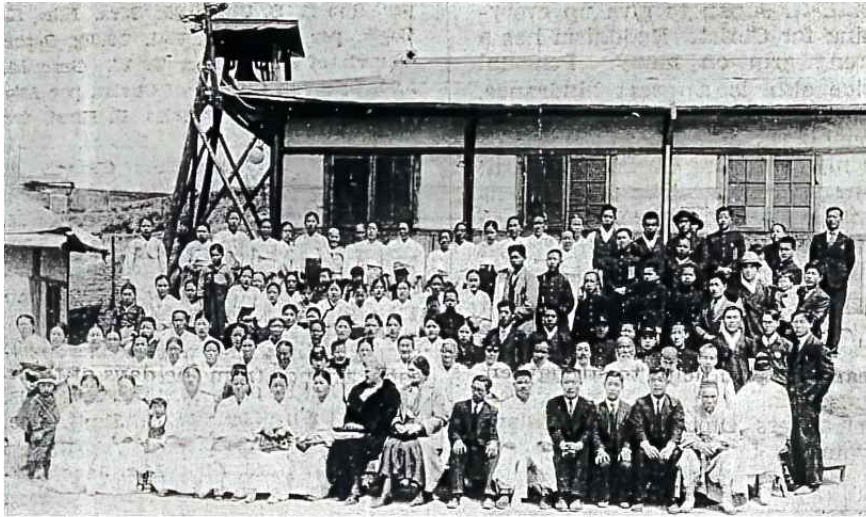
광주성결교회 교회사 기록에 따르면, 신신근은 제6대 교역자 김정호 전도사에 이어 제7대 교역자로 1932년 3월 27일부터 1936년 1월 7일까지 시무하였다. 그는 1932년에 태전리교회를 개척하였고, 1934년 1월 2일부터는 초대 교역자로 겸임하였다. 한편 그의 선배 이인범 역시 1920년에 광주성결교회를 전도사로 섬긴 바 있다.

동양선교회는 1936년 6월 22일 신신근(경기도 광주군 경안면 경안리 51번지)의 포교폐지계를 신고하였다(「조선총독부관보」 제2859호 6면, 소화 11년 7월 24일). 수개월 뒤인 9월 4일, 이인범은 기독교회 조선선교회의 포교자로 신신근(경기도 인천부 금곡리 5번지)의 포교계를 신고하였다(「조선총독부관보」 제2929호 3-4면, 소화 11년 10월 16일).

「도쿄 크리스천」 1932년 8월호와 1933년 8월호에 따르면, 요츠야 선교부는 이인범을 1932년 8월부터 두 달간, 1933년 2월 중순부터 한 달 이상 한국에 단기선교사로 파송하였다. 이 기간 동안 이인범이 거둔 성과에 고무된 요츠야 선교부는 도쿄 심천(후카가와)조선인기독교교회 담임자였던 이인범을 새로운 포교관리자로 한국에 파송하기 위해 성낙소를 해임하였다. 커닝햄은 1935년 12월 11일 조선총독부에 보낸 편지에서 해임 날짜를 1933년 5월 20일이라고 밝혔다.

요츠야 선교부는 1933년 6월 5일 월례회에서 이인범과 가족을 한국 상주 선교사(제2대 조선 포교관리자)로 파송하는 안건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이에 이인범은 심천조선인기독교교회를 조력자 채호(Ho Cheh)에게 맡기고 같은 해 9월 인천 송현기독교교회에 부임하였다. 그러나 성낙소가 사표를 수리하지 않았고, 조선총독부 학무국 사회과도 까다로운 조건을 내세워 포교관리자변경계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과정에서 윌리엄 커닝햄은 조선총독부 총독(1919-27, 1929-31)과 일본 정부 수상(1932-34)을 지낸 사이토 마코토(齋藤 実)에게 여러 차례 도움을 요청하였다. 이러한 노력 끝에 1936년 1월 10일 총독부가 성낙소를 소환하여 사직서를 쓰게 하였고, 포교관리자변경계가 제출될 수 있었다. 당시 신신근은 광주성결교회를 담임하고 있었으며, 이인범과 신신근 사이에는 이미 일정한 약속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인천 송현기독교교회(1937년 4월)
에밀리 커닝햄(검정색 코트), 쉘멜, 담임목사 신신근(흰색 우측, 안경)

포교관리자변경
계가 받아들여지자
마자 이인범은 인
천 송현기독교회를
광주성결교회 담임
전도사였던 신신근
에게 맡기고, 자신
은 서울 제1교회-
경성기독교회의 후
신이라 할 수 있는
-아현정기독교회
(경기도 경성부 아
현정 473번지)로

옮겨 활동하였다. 이인범은 1943년 9월 17일까지 포교관리자로 헌신하며 신사참배와
일본기독교조선교단 가입을 거부하였고, 그로 인해 심한 고초를 겪다가 1943년 9월
30일 포교폐지를 당하였다(「조선총독부관보」 제5024호 20면, 소화 18년 10월 30일).

반면 신신근은 이름을 평산무웅(平山武雄)으로 개명하고 1943년 9월 17일 기독교
회 조선선교회 제2대 포교관리자가 되었다(「조선총독부관보」 제5020호 14면, 소화
18년 10월 26일). 그가 담임한 인천 송현기독교회가 폐쇄되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일제에 협조적이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포교관리자가 된 신신근은 1943년 9월 30일 이인범의 포교폐지계, 아현정기독교회
(이인범) 포교담임자변경계, 염리정기독교회(이난기) 포교담임자변경계, 유지옥의 포교
계 및 포교담임자선정계를 제출하였다. 이난기 목사가 포교를 폐지당한 이유도 이인
범과 마찬가지로 신사참배 및 일본기독교조선교단 가입을 거부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송현기독교회가 폐쇄되지 않았다는 증거는 교회 약사에 나타난다.

1942.5 성전 11간 증축

1943.5 금곡동교회와 유동교회가 일제 탄압에 의해 본교회로 병합

1945.8.12 유진우 장로 장립

1945.8.15 민족해방(당시 유일한 교회종으로 해방 소식을 전파)

1945.11 임준식 장로 장립. (*임준식은 아현정 서울성경훈련원에서 공부했으며
1939년 4월 인천 제4교회를 개척했었다. 「도쿄 크리스천」 1940년 11월호)

1945.11 송학동에 일본 감리교회를 인수. 정삼선 목사, 유진우 장로, 조의환, 유효
식, 진순애 집사의 70여명의 성도를 파송하여 교회를 개척(후에 제일 장로교회가 됨)

1946.1 윤은상 집사 장로 피택

1946.12.2 신신근 목사 소천

1946.12.10 기독교대한성결교회 재건

송현기독교회가 송현성결교회로 재건된 시점은 신신근 목사가 1946년 12월 2일 별

제한 지 8일 후였다. 신신근은 생전에 성결교회 재건을 양심상 꺼렸을 가능성이 있다.



인천 송현기독교교회 담임 신신근 목사(1936년)

송현기독교회는 요츠야 선교부가 세운 인천 제1교회로서, 인천 지역의 다른 세 교회가 이곳에서 분립될 만큼 중심적인 역할을 했다. 설립자 정삼선 집사는 전기 사업자였던 경력 덕분인지 1930년대라는 이른 시기에도 예배당에 전기 시설을 갖추어 놓았다. 그는 서울성경훈련원(아현정) 졸업생으로 초대 담임자로 섬겼으나, 공식 신고된 담임자는 포교관리자 성낙소였다. 1933년 9월 도쿄에서 귀국한 이인범이 뒤를 이어 사역하다가 1936년에는 신신근이 담임을 맡았다. 같은 해 발행된 「도쿄 크리스천」은 인천 제1교회 담임목회자로서 신신근의 전신사진을 게재하였다.

신신근은 1936년 1월 7일까지 경기도 광주성결교회를 섬겼으며, 사임 후 송현기독교회로 부임한 것은 이인범의 권유 때문이었다. 송현기독교회는 규모가 있었음에도 요츠야 선교부가 목회자 월급을 보조하였다. 1936년 당시 제1교회(송현동) 교인 100여 명, 제2교회(유동) 30여 명, 제3교회(금곡동) 20여 명이었다(「도쿄 크리스천」 1936년 12월호). 선교사들은 신신근을 체구는 왜소하지만 믿음이 확고한 인물로 소개하였다.



인천기독교교회 신학교 창립기념(1936년 10월 5일)

토마스 헛치(중앙), 김영배(중절모), 이인범(어린이), 신신근(안경)

1936년 송현기독교회에는 성서훈련원이 개설되어 주 4회 야간 한 시간씩 성서교육이 이루어졌다. 학생은 16명이었고, 김영배 전도자(교사), 신신근 목사, 박사은 집사가 가르쳤다. 한국기독교회들에서는 인천 송현기독교회

와 평북 구성군 방현기독교교회에만 유치원이 있었으며, 송현기독교회 유치원에는 170명의 어린이가 등록하였다.

1941년 종교법 시행으로 한국 선교가 어려워지자 요츠야 선교부는 임대건물에 세워 있는 8개 교회에 1941년 임대료를 일괄 지원하기로 결정했고, 송현기독교회에도



인천 송현기독교교회 주일학교 학생들(1939년, 담임목사 신신근)

동일한 액수를 보냈다. 이때까지도 목사 사택 임대료를 지원 받았던 것으로 보인다.

송헌성결교회 약사에 따르면, 신신근은 1946년 12월 2일 별세하였고, 8

일 뒤인 12월 10일 송헌기독교교회는 기독교대한성결교회로 재건되었다. 앞서 언급했듯이 요츠야 선교부에서 활동한 한국인 사역자 상당수가 경성성서학원(성결교) 출신이었고, 선교부와 연락이 끊긴 상황에서 자연스럽게 성결교 출신이 후임자로 결정된 것으로 보인다. 동양선교회 성결교회들은 1943년 12월 31일 일괄 폐쇄되었다가 해방 후 재건되었는데, 송헌기독교교회도 그 과정에서 성결교회로 재건된 것으로 여겨진다. 이는 요츠야 선교부의 후원이 끊긴 지 불과 5년 만에 발생한 안타까운 사건이었다.

참고문헌

광주교회 연역(<https://egwangju.org/>); *Tokyo Christian*, 1932년 8월호, 1933년 8월호.; 「조선총독부관보」 1933.3.18.; 1933.4.19.; 1936.7.24.; 1936.10.16.; 1936.11.18.; 1943.10.26.; 1943.10.30.; 1943.11.8.; 1944.12.6.; 1944.12.7.; 1944.12.9.; 『조선총독부 기록으로 본 한국 그리스도의 교회』(조동호, 그리스도의교회연구소, 2016: <http://kccs.info/조선총독부 기록으로 본 한국 그리스도의 교회.pdf>); 『한국 그리스도의교회의 역사』(백종구, 조동호, 쿤란출판사, 2018); 『한국 그리스도의 교회 이야기』(조동호, 그리스도의교회연구소, 2017: http://kccs.info/그리스도의 교회이야기_증보판20181113.pdf); 『한국 그리스도(인)의교회들 초기 50년사(1924-1974)』(조동호, 도서출판 끌림, 2023).

주정국(朱廷國) 목사



주정국 목사(1938년)
평북 구성군 방현 그리스도의 교회 목회자
[출처: Tokyo Christian]

성결교회로 거주지 이전 신고,

1927년 1월 27일 충남 연기군 조치원면 조치원리 39번지 조치원 성결교회 포교소 설치 및 담임자 신고,

1927년 8월 10일 부강리에서 조치원리로 거주지 이전 신고를 하였다.

그리고 조치원 성결교회 목회를 끝으로 1928년 2월 24일 포교 폐지계가 조선총독부 학무국 사회과에 신고 되었다. 이어 5월 4일에는 조치원 성결교회 포교담임자가 주정국에서 김동훈으로 변경 신고 되었다.

그러나 주정국이 성결교회를 떠난 이유와 이후 약 5년간의 행적은 전혀 알려져 있지 않다. 이 공백기를 지나 그는 미국 그리스도의 교회(Christian Churches) 소속 독립 선교사 윌리엄 커닝햄(William D. Cunningham)이 이끄는 요츠야 선교부(Yotsuya Mission) 산하 심천조선기독교교회(후카가와 한인 그리스도의 교회)에 제3대 목사로 부임하였다. 이 교회는 이인범이 거의 개척하다시피 하여 다년간 시무했던 곳으로, 주정국은 1935년 초 이인범·채호의 뒤를 이어 부임하였다. 당시 그의 나이는 49세였으며, 부인과 외아들을 두고 있었다. 도쿄에 언제부터 거주했는지는 알 수 없으나, 경성성서학원의 후배인 이인범의 추천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커닝햄은 이인범을 ‘조선의 여호수아’라고 부를 정도로 신뢰하고 있었다.

도쿄 심천조선기독교교회에서 목회하던 중 주정국은 한국을 방문할 기회를 가졌고, 도쿄로 돌아온 직후 신의주에 교회를 개척할 뜻을 밝히며 한국으로 돌아가겠다는 의사를 표명하였다(도쿄 크리스천, 1937년 5월호). 그는 그해 평안북도 신의주 기독교회로 옮겨갔다.

한편 1937년에는 커닝햄이 ‘조선의 갈렙’이라 칭한 이원균 목사가 평북 구성군 방현면 하단동 방현기독교교회 담임을 사임하고 도쿄 삼하도조선기독교교회로 부임하였다(도쿄 크리스천, 1937년 1월호). 그 대신 방현기독교교회에는 48세의 김성산 목사가

주정국(朱廷國) 목사는 경성성서학원에서 이인범 목사의 1~2년 선배였던 것으로 추정된다. 이인범 목사가 1917년에 경성성서학원에 입학하여 김상준 목사에게 배우고 1920년에 졸업한 뒤 곧바로 목회에 나선 것과 달리, 주정국은 이미 1919년에 경기도 안성군 양성면 동항리 34번지 성결교회에서 첫 목회를 시작한 기록이 있기 때문이다(조선총독부 관보 제2153호 14면). 나이는 이인범보다 훨씬 많았던 것으로 보인다.

조선총독부 관보에 따르면, 주정국은 1919년 9월 23일 안성군 양성면 동항리 성결교회 포교계 신고,

1920년 12월 9일 부산부 초량동 성결교회로 포교계 신고,

1922년 5월 10일 김해군 생림면 봉림리

1937년 4월 부임하였는데, 이는 이원균의 추천과 조선선교회 기독교회의 포교관리자 이인범의 추천으로 이루어진 것이었다(도쿄 크리스천, 1937년 6월호). 그러나 김성산이 좋은 성과를 내지 못하자(도쿄 크리스천, 1937년 12월호) 주정국이 대신 담임을 맡게 되었고, 이는 1938년 4월호에 기록되어 있다. 주정국은 1938년 초 방현기독교회에 부임할 당시 목회 경력 20년차였다.

그는 1938년 8월 방현교회에서 특별집회를 열어 많은 결신자를 얻었고, 9월에는 서울에서 신의주 기독교회 개척을 위한 모금도 진행하였다. 그러나 이후 <도쿄 크리스천>은 더 이상 그의 행적을 언급하지 않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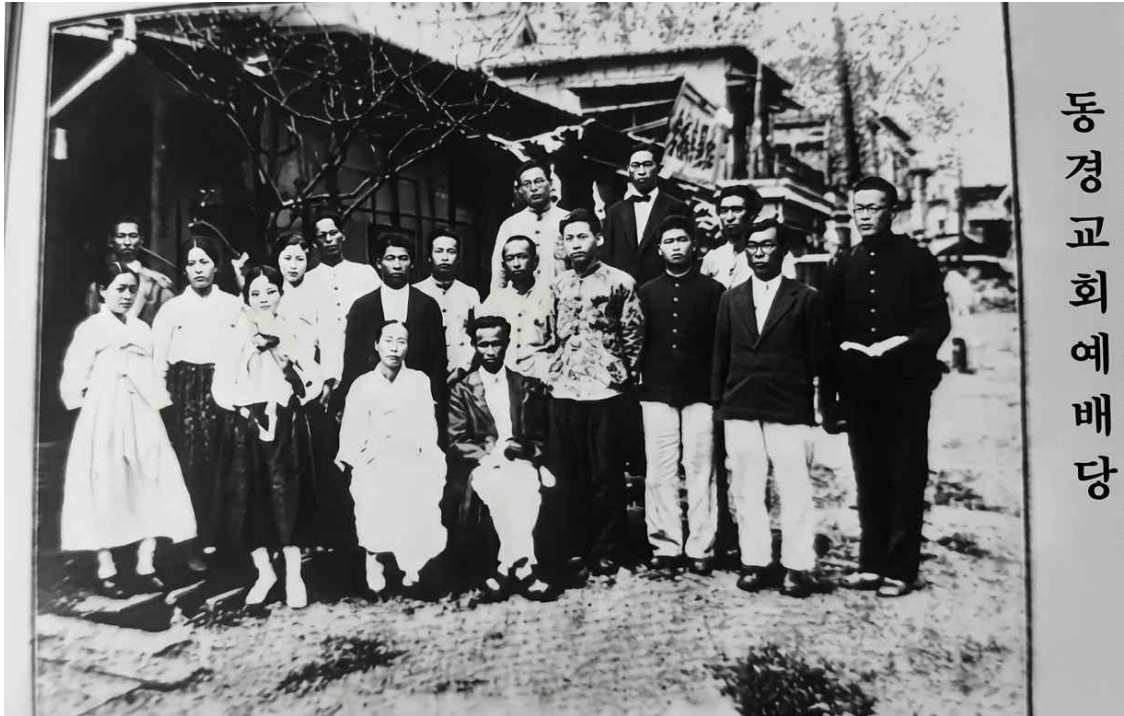
주정국이 방현기독교회에서 언제까지 시무했는지는 알 수 없다. 1938년 이후 한국 교회들은 동방요배·신사참배·일본기독교조선교단 통합 강요 등 극심한 탄압을 받았고, 방현기독교회처럼 규모가 큰 교회는 더욱 피해를 피하기 어려웠다. 1941년 4월 1일 시행된 종교법으로 일본과 한국의 교회들은 1941년분 후원금을 일시불로 받은 뒤, 1942년부터는 해외 후원금을 전혀 받을 수 없게 되었다. 그해 말 태평양전쟁이 발발하면서 선교사들이 모두 철수하였고, 1947년까지 최소 5년간 모든 선교부가 폐쇄되면서 미자립교회들은 문을 닫거나 흩어질 수밖에 없었다. 성결교회는 1943년 12월 31일 포교(관리자) 폐지계가 신고 되었고, 기독교회(그리스도의 교회 협의회/총회)는 그보다 6개월 후인 1944년 6월 30일에 포교 폐지계가 신고 되었다. 이 기록만으로도 당시 교회들이 겪은 시련을 짐작할 수 있다.

주정국의 행적이 다시 드러난 것은 류재하 목사가 <한국 성결신문>(2019.02.13)에 게재한 “성전건축 필요시마다 부임한 건축가 목사(1)”와 홍성훈 목사의 댓글을 통해서였다. 이에 따르면 주정국은 1941년경까지 창신동 성결교회 담임목사였으며, 1941년에 신설리감리교회(현 보문제일감리교회) 담임목사로 부임하였다. 홍성훈은 “주정국 목사는 경성성서학원을 입학하기 전인 1916년에 신설리기도처(이후 신설리감리교회=現 보문제일감리교회)를 개척한 개척자였습니다. 무슨 이윤지는 모르겠지만, 1941년에 자신이 개척했던 곳이자 일종의 고향이라 할 수 있는 신설리감리교회로 잠시 갔다 왔습니다.”고 기록하였다.

참고문헌

Tokyo Christian, Apr.1935; May.1937; Dec.1937; Apr.1938; Nov.1938; 『조선총독부관보』 1919.10.14.; 1921.4.12.; 1922.7.17.; 1927.6.16.; 1927.9.29.; 1928.6.13.; 1928.7.5.; 1941.4.2.; 1944.2.19. 1944.10.10.; 1944.12.6.; 1945.1.23.; 『조선총독부 기록으로 본 한국 그리스도의 교회』(조동호, 그리스도의교회연구소, 2016: <http://kccs.info/조선총독부 기록으로 본 한국 그리스도의 교회.pdf>); 『한국 그리스도의 교회의 역사』(백종구, 조동호, 쿤란출판사, 2018); 『한국 그리스도의 교회 이야기』(조동호, 그리스도의교회연구소, 2017: http://kccs.info/그리스도의교회이야기_증보판20181113.pdf); 『한국 그리스도(인)의교회들 초기 50년사(1924-1974)』(조동호, 도서출판 끌림, 2023). 류재하 목사, “성전건축 필요시마다 부임한 건축가 목사(1)”, <한국 성결신문> [입력 2019.02.13]

윤낙영 목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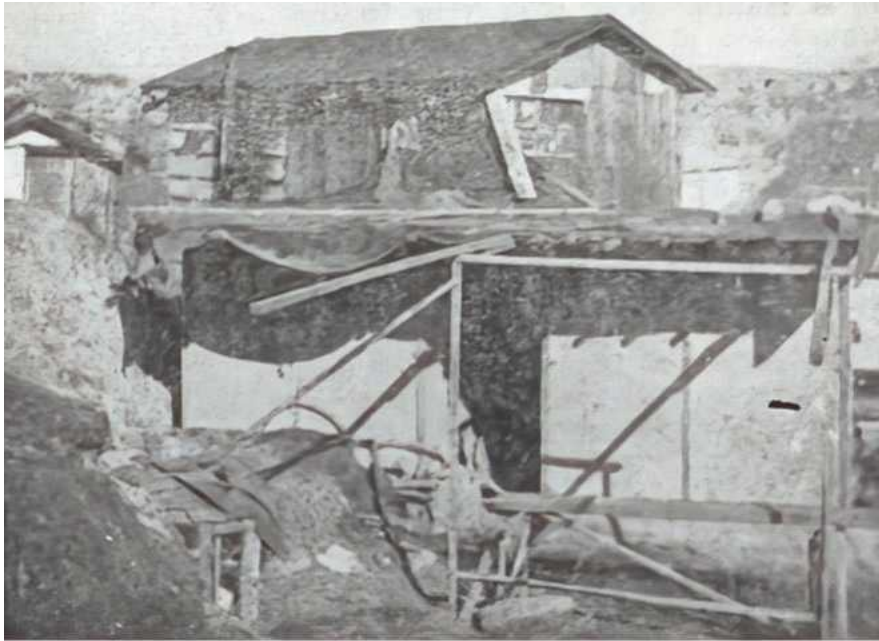
약사 p132 윤낙영 전도사. 동경성결교회

윤낙영 목사는 1930-40년대 동안 그리스도(인)의교회에서 목회한 인물로, 한국 초기 복음주의 교회의 여러 흐름을 가로지르며 활동하였다. 그는 1920년에 세례를 받고 성결교 계열의 동경성서학원에서 신학을 공부했으며, 슬하에 아홉 명의 자녀를 두었다. 1927년 3월에는 동경기독교교회(성결교)를 설립하여 1928년까지 시무했고, 풍교교회와 세 개의 기도처를 개설하는 등 초기부터 활발한 목회 활동을 이어갔다(기독교 대한성결교회 해외선교위원회 자료).

1930년대에 들어서 독립 기독교회(그리스도의 교회들) 선교사 윌리엄 커닝햄이 세운 도쿄 요츠야 선교부에 고용되어 조선선교회 기독교회(포교관리자 이인범) 산하의 여러 교회(아현정, 영등포)를 개척하였다. 아현정기독교회는 요츠야 선교부의 조선선교회 서울 제4교회로, 윤낙영이 12명을 침례하여 1938년 5월 8일 아현정에서 시작한 것으로 보고되었다. 이권신 여전도사가 이 교회의 사역을 도왔다. 이후 윤낙영은 영등포기독교회의 담임목사로 선정되었고, 포교관리자 이인범은 1938년 8월 22일 포교규칙에 따라 윤낙영(경기도 경성부 흑석정 37번지)의 포교계, 영등포기독교회(경기도 경성부 영등포정 256번지)의 포교소 설치계, 그리고 윤낙영의 담임자 선정계를 조선총독부에 제출하였다(「조선총독부 관보」 제3567호 4-6면, 소화 13년 12월 8일).

해방 직후인 1946년에는 한국기독교장로회 증평교회에서 목회하였다. 이어 1948년 10월 17일 서울에 도착하여 1949년 2월 중순까지 체류한 존 T. 채이스(John T. Chase) 선교사의 기록에 따르면, 당시 윤낙영 목사와 그의 아현동교회는 성낙소 목사의 인도로 '기독교회 선교부'에 합류해 있었으며, 1940년대 말까지 아현동에서 목회

하였다.



윤낙영 목사가 시무하던 아현동 그리스도의 교회(1948년말-1949년초 사이). 방 두칸짜리 2층이 집회소였고, 80여명이 착석해 예배를 드렸다. 천정이 낮아 채이스는 상체를 세우지 못했고, 무너지지 않을까 걱정도 했었다.

아현동 그리스도의 교회는 좁고 가파른 흙길 언덕 위에 자리한 작은 2층 건물이었다. 채이스는 1949년 1월 12일 눈이 쌓인 밤, 감기 몸살을 앓는 상태에서 설교를 위해 이 교회를 방문했다. 교회에 도착했을 때 80여 명의 성도들이 낮은 천장의 두 개 방을 가득 메우고 힘차게 찬송하고 있었다.

천장이 너무 낮아 채이스는 허리를 펴지 못한 채 설교해야 했고, 예배 후 아래층에서 다과를 나누는 동안에도 성도들은 2층에서 계속 찬송을 불러 건물이 무너지지 않을까 걱정해야 했다고 기록했다. 당시 윤낙영 목사의 생활비는 성낙소 목사의 필운동교회가 후원하고 있었다(“Too Many People?” and “The Year 1948” and “May I Introduce to You,” *Korean Messenger*, 1949년 3월호).

1949년 전반기에는 기독교회선교부의 존 J. 힐 선교사가 85달러에 매입한 만리동의 오래된 건물을 윤낙영 목사가 수리하여 새로운 교회를 개척하였다(John J. Hill, “Progress of Work in Korea Encouraging,” States John J. Hill, Missionary,” *Christian Standard*, 25 June 1949: 405>.

김성철 목사의 증언에 따르면, 윤낙영 목사의 집은 병점과 오산 사이에 있었으며, 그는 부강교회 김은석 목사와 친분이 있었다. 김은석 목사의 서울집은 아현동 금화산 언덕에 있었는데, 1950년 당시 윤낙영 목사의 큰딸은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에 다니며 여동생과 함께 그 집 건넌방에서 셋방살이를 하고 있었다. 같은 해 8월, 12세였던 김성철은 병에서 회복된 양아버지 김은석 목사와 함께 피난을 가던 중 병점과 오산 사이에 있는 윤낙영 목사의 집을 방문했으나, 둘째 딸만 남아 있고 가족은 이미 피신한 상태여서 만나지 못했다고 한다[조동호, 『한국의 바울 김은석 목사』(도서출판 시시울, 2020): 84-86].

1952년 9월 14일에는 경기도 평택군 평택읍 평택리에서 기독교한국침례회 평택교회를 개척하여 1954년 3월까지 시무하였다(교회연역: <http://www.ptbc1.net/main/>

sub.html?pageCode=4> 이후 1955년 7월 6일 기독교한국침례회 영등포교회 제3대 담임목사로 부임하여 1958년 전반기까지 목회하였다(교회연역: http://youngchim.com/?page_id=609).

참고문헌

John T. Chase, "Too Many People?" and "The Year 1948" and "May I Introduce to You," *Korean Messenger*, 1949년 3월호.; John J. Hill, "'Progress of Work in Korea Encouraging,' States John J. Hill, Missionary," *Christian Standard*, 25 June 1949: 405.; 교회연역: <http://www.ptbc1.net/main/sub.html?pageCode=4>.; 교회연역: http://youngchim.com/?page_id=609.; 기독교대한성결교회 해외선교위원회: http://kcm.kr/dic_view.php?nid=40150: 208.11.28 입력.; 「조선총독부 관보」 제3567호 4-6면, 소화 13년 12월 8일.; 『한국 그리스도의교회의 역사』(백종구, 조동호, 쿤란출판사, 2018); 『한국 그리스도의 교회 이야기』(조동호, 그리스도의교회연구소, 2017: http://kccs.info/그리스도의교회이야기_증보판20181113.pdf); 『한국 그리스도(인)의교회들 초기 50년사(1924-1974)』(조동호, 도서출판 끌림, 2023); 『한국침례교 인물사』(김갑수, 요단출판사, 2007).; 『한국의 바울 김은석 목사』(조동호, 도서출판 시시울, 2020): 84-86.

〈활천〉에서 발췌한 윤낙영 목사의 초기 자료 및 간증문

(윌리엄 커닝햄, 존 채이스 및 김은석 목사와 관련된 인물: 성결교회, 그리스도의 교회 및 침례교회에서 목회자로 활동)

조동호(그리스도의 교회 연구소)

일본에 설립된 한국인 대상 한인동경성결교회

1. 만주 용정 한인 성결교회(1925년 3월)에 이어 일본 동경 한인 성결교회 설립(1927년 3월)

일본 동경에 거류하는 7만여의 동포의 심령을 위하여 선교사 한사람을 파송하기로 작정하였는데 거기에 갈 형제는 지난 4월에 동경성서학원을 졸업한 윤낙영 형이라더라.〈활천〉 1927.5. 통권 제54호 p54

2. 윤낙영 전도사 간증_〈활천〉 1927.6. 통권 제55호 p41~

참사랑은 영혼을 구원 (윤낙영 군의 구원 받은 실험담)

1) 13세부터 방랑생활

나는 경기도 수원출생으로 13세 소년으로 어떠한 뜻을 가지고 아라사로 가서 수년간

유술을 배워 상당한 계제를 밟아 득업한 후에 다시 본국에 돌아왔다가 다시 뜻을 뒤쳐 가지고 일본 동경에 가서 어느 직물회사에서 견학하여 썻켓(주: Jacket의 일본말 샤켓토/쟈켓토의 우리말 된소리) 직조하는 법을 배워 가지고는 자업으로 시작하여 금전이라고 7-8만원 가량을 저축하고 직공도 수십인을 두었었으며 각처로 수출수입이 상당하여 동경에 있는 우리 조선인의 생활치고는 아주 풍족하였었습니다.

2) 처자, 가옥, 금전이 일본간에 초토화

이 세상에는 불우지환이란 것이 많은 중 누구든지 일본의 관동진재라 하면 듣기만 하여도 그 비참한 광경을 보나 다름이 없이 느끼게하는 바어니와, 이때에 나는 자기와 거래하는 어느 상점에 가서 회계할 것을 다하여 청장(주:淸帳-회계나 셈을 깨끗하게 정리하여 끝마침)한 후에 작별하고 상점문에서 나와 자동차를 타고 약 50보 가량 진행하자 홀연히 음향이 나며 지면이 흔들리매 자동차가 전복이 되어 길 아래로 떨어지는지라. 간신히 나와 도망하려하나 땅이 너무 흔들리는 까닭에 자꾸 넘어진즉 촌보를 움직이지 못하고 땅에 그대로 엎드려 본즉 내가 먼저 들어가서 회계를 달고 나온 회사는 매우 큰 회사라. 300여명의 사무원이 있었는데 지진이 일어나는 동시에 3층 벽돌양옥이 붕괴하여 한 사람도 남지 않고 다 죽는 것을 볼 때에 먼저 생각나는 것은 나의 처자와 금전과 가옥과 직공들이었습니다.

나는 나의 동리편을 향하여 바라본즉 염염(주:炎炎-이글이글할 정도로 몹시 뜨겁게 타오르는 불길)한 불길은 천지를 다 태울듯하고 몽몽(주:濛濛/朦朦-연기나 안개 등이 짙고 자욱하여 앞이 잘 보이지 않는 상태)한 연기는 방향을 분별키 어려운 중 사방에서 남녀노유의 구원하여 달라고 부르짖는 애처로운 음성은 차마 들을 수가 없었는데 지진이 조금 그친 후 나의 집에 돌아와 본즉 가옥과 직조기계와 직공과 처자는 다 초로(주:草露-화마에 휩쓸려 이슬처럼 사라진 참상)가 되고 구원받은 자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때에 나는 불에 타는 재목을 헤치고 본즉 해골이 사방에 흩어져 있는데 어느 것이 처인지 공인인지 알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자세히 조사하여 처는 금반지를 끼고 아이를 안고 지전뭉치를 들고 나오다가 문간에서 치어죽은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오호라! 이때에 나의 마음에 아픔이야 무엇으로 형언하겠습니까? 그러나 내가 이제 감사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그 화마 속에서 구원하심은 오늘날 나로 하여금 복음을 전파하려 하심인줄 알고 감사합니다. 이때에 우리 조선인의 형편을 보면 백척간두에 어찌할 수 없는 곤경에 빠졌습니다.

(중략)

그때에 나는 그 참담한 광경을 볼 때에 두 눈에서는 동족애의 혈루를 금치 못하였습니다.

(중략)

명고옥(주: 나고야)으로 도망할 때에 낮에는 감히 얼굴을 내놓지 못하고 어느 굴속이나 잿더미 속에서 피신을 하고 밤중에 여행을 하였으나 위험한 지경을 당하여 생명을 빼앗길 뻔한 적이 1,2차 가 아닐 뿐 아니라 전신에 4,5차례 칼을 맞은 흔적이 아직도 명백합니다. 영원히 없어지지 아니할 줄로 생각합니다. 이러한 중에서 구사일생으로 명고옥에 도착하여 우리 동포의 안부 를 살피던 중이옵시다.

3) 목사의 팔을 꺾고

명고옥에 가서 이리저리 다니다가 어느 날 저녁에 한곳에 이른즉 일본성결교회 목사 석천씨가 복을 치면서 예수교는 사랑이라고 설교하는 것을 듣다가 큰 반동심이 일어났습니다. 사랑은 무슨 사랑이나 하고 달려들어 5,6인[일]을 매어 꽂아버리고 목사의 팔을 잡아 두르는 바람에 목사는 팔이 부러져서 병원으로 메여가는 등 사망에서는 저 놈 죽여라 잡아라 하며 설교 장은 큰 소동이 일어나서 나의 신변에는 큰 힘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때에 그 교회 신자들은 나를 떠드는 군중에게 맡기지 아니하고 도리어 나를 보호하여 예배당으로 인도한 후에, 목사의 부인은 자기의 남편 병원에 간 것도 생각지 않고 오직 나의 머리에 손을 안찰하고 밤새도록 나의 영혼을 위하여 기도하였습니다. 나는 그때에 취한 척[적]하고 누워 있으면서도 그 뜨거운 사랑에 양심의 가책을 받아 견딜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그 자리에서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는 동시에 나도 종금(終今) 이후로는 나도 내 동족을 이와 같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구원(하)리라고 결심을 굳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거기서 떠나 다시 이리저리 표류여 돌아다니는 중 그 결심도 사라지고 다시 이전 상태로 돌아가고 만 것입니다.

그래서 굴러굴러 동경 삼하정이라는 곳에 이른즉 거기에도 동양선교회 일본성결교회가 있었는데 그 교회 목사는 황천이라는 열심있는 청년이었다. 그는 매일 저녁이면 부부가 나와서 부인은 복을 치고 황천목사는 사회하고 또 설교하기를 변함이 없이 하였습니다. 그때에 나는 생각하기를 어디 저 목사도 명고옥교회 석천씨와 같은가 시험하리 하고 모래를 많이 준비하여 가지고 있다가 설교하는 자의 전면을 향하여 던진즉 그 눈으로 모래가 들어가서 눈을 뜨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부부는 그 자리에 그대로 엎드려 나의 영혼을 위하여 기도하였는데 나는 그때에도 그리스도의 사랑이 과연 이러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 목사는 그렇게 기도한 후에 예배당으로 들어가는데 곧 따라가고 싶지만 부끄러운 마음이 일어나서 감히 예배당 안에 발을 들이지 못하고 주저하고 섰을 때 황천목사 부인의 인도를 받아 겨우 예배당에 들어간즉 목사는 설교를 마치고 간절히 권면할 때에 참으로 굳게 굳게 결심하고 예배당 문밖을 나서니 때는 이미 11시나 지나고 겹하여 일기는 추운데 그때 나의 육신의 형편은 아주 냉락하여 돈도 없고 돌아갈 곳이 없게 되었습니다. 그런고로 할 수 없이 예배당 밖에 처마에 웅크리고 앉아서 밤을 지새게 될 일인데 그때 마침 황천목사 아내가 자다가 그 광경을 내어다 보고 침의를 입은 채로 뛰어내려와 2층으로

인도하며 말하기를 형제가 그렇게 잘 곳이 없을잔대 어찌하여 나에게 말하지 아니하였냐하며 자기 두 내외가 자던 이불속으로 나를 들어가라하고, 자기들은 다른 곳으로 가서 자게 되었습니다. 생각하니 그것은 진실로 거짓없는 순전한 하나님의 사랑인줄 알게 되었습니다.

4) 신앙수양

그래서 그때부터 황천목사는 나를 위하여 있을 처소와 직업을 구하여 줌으로 이제는 주리고 얼어 죽을 염려는 면케 되었습니다. 나는 그때에 어떻게 하면 나도 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나의 동족을 구원할까 생각하였으나 진실로 길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신문배달을 하기를 시작하여 약간의 수입으로 성서학원에 입학코져 한즉 원장은 중학교 졸업생이 아니라는 이유로 허락하지 않고 조선에 가서 조선인 성서학원에서 공부함이 좋다하며 거절하였습니다. 그러나 나는 말하기를 원비수양생이 아니라 자비로 방청이라도 좀하자 한즉 그도 불허하였습니다. 그러나 나는 처음에 억지로 말석을 강점하고 청강을 하다가 나중에는 스스로 원비생도 총중에 들어가 앓은즉 대단히 거북하게 생각을 하고 냉대를 하는 모양이나 나는 알면서도 모르는 체하고 매일 출석하여 공부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학비의 곤란으로 형언할 수 없는 고통을 받았으나 하나님께서 신기한 권능으로 인도하사 수양을 마치게 하시고 금일에 이 전도자가 되게 하심에 대하여 그의 뜻을 따라 이 몸을 바쳐 동족을 위하여 진력하려합니다.

윤, 박 형매의 결혼식_〈활천〉 1927.7. p56

일본 동경으로 파송을 받은 윤락영형과 간도 용정교회의 박로희 자매와의 결혼식은 6월 20일 하오 네시에 박영순의 주례로 경성성학원대강당에서 거행되었다.

임명기_〈활천〉 1928.5. p60 임명기

소속: 이사회직할

동경교회 윤낙영 동정부 하대정정 삼하 488

동경성결교회 전경 1928.11.(첫 페이지로 옮김)

동경교회 대발전 〈활천〉 1928.12. p55

작년 6월 25일 창립되어 저간 진퇴곡절이 많았으나 윤락영전도사의 끊임없는 기도와 꿋꿋이 나오는 충성스러운 전도로 말미암아 신자다운 신자가 하나 둘씩 생기게 시작하여 현재 근 20명씩 모여 예배 보는 중 한 가지 크게 위로되는 바는 신자 중에 8,9인의 기도가 있는 것이라 하며 특히 요사이에 와서는 성신의 크신 역사가 교회 전체에 임하는 동시에 그 불길이 애지현과 그 외 2,3처에 까지 파급이 되어 금년 9월분에 애지현 악미군 전원정에 지교회를 설립하였는데 신자는 결심자까지 합해서 모두 160여명이나 되오며 그 외 2,3처에도 기도소를 설립하였다는바 이와 같이 먼 지방에까지 지교회와 기

도소를 설립케 된 것으로 말하면 전도사가 그곳까지 가서 전도함으로 된 것이 아니고 오직 윤전도사의 끊임없는 기도로 동경 본교회 신자에게 성신이 임하심으로 그들이 사방에 복음을 전한 결과입니다.

그리고 몇 가지 또 아름다운 일은 전도사 한 사람으로 동경본교회와 3,4처의 지교회 및 기도소를 인도할 수 없으므로 먼저 동경 본교회에 교무집사(전북 금산출생, 일찍 장로교회에서 믿다가 동경으로 건너간 후 우리교회에 다니며 새로운 은혜를 받은 김성복 형제)일인과, 서무집사(경국 군위출신인 성서학원 재학중인 박동희형제의 장남 박진환형제)일인을 세워서 본교회의 일을 보게 하고 윤전도사는 각처로 순회하며 인도하기로 작정하였으나 애지현지회는 거리가 너무 먼 관계로 실행하기 어려워서 걱정을 하고 있는 중 류재현이라는 형제(일찍 피어선 성경학원에서 2년간 수업한 형제)가 본부에서 전도사를 파송하기까지 임시로 노동하여가면서 역사를 만들겠다고 자원하고 그곳으로 가서 고생당하는 중입니다. 이 모든 일을 인하여 주께 영광을 돌리기를 마지 아니한다더라.

p56 윤낙영 전도사는 지난 5월 15일 득녀하고 귀섭이라 명명하였다.

기금수입보고 1928년도분 〈활천〉 1929.3. p57

동경교회 2월35전

윤전도사는 개인적인 험악한 인생사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동족 구령에 헌신할 것을 결심하고 이를 수행하기 위해 동경성서학원 전도인 양성 과정을 고단하게 마치고 동경에 거주하는 동족들을 위해 열렬한 구령자씨의 삶을 살고 2년만에 지교회인 애지현성결교회로 전임되었다.

제2대 담임교역자: 강송수 목사

교회설립과 초대 담임교역자로 구령활동 전념하던 윤낙영 전도사가 1929년 애지현성결교회로 전임되고 후임으로 강송수 목사가 부임해 왔고 동경지방 감리목사대리 겸직했다.

임명기 〈활천〉 7권, 1929.4. p61

동경지방/ 감리목사대리 강송수

감리목사주재지 동경

동경교회 강송수 김득의

애지현 윤낙영 김득의

의사를 보임으로 문제가 해결되어 예배출석하게 되었다 했으니 그 여공들의 놀라운 신앙이 교회의 존재가치를 드높였고 감동을 주었다.

동경교회 전도사 윤락영씨는 해교회 교세에 대하여 여좌히 보고하다(통계표 부록참조).

본교회는 작년 년회 후에 신자들의 귀국 혹은 이전으로 인하여 회집인원수가 7~80여명에 지나지 못하였습니다. 교제는 이것을 저희 책임으로 알고 요한복음 제9장 31절의 말씀 위에 서서 근 한 달간 매일 조천마다 신앙으로 기도하는 중 신자가 차차 증가되는 동시에 송도, 새천곡, 천기, 애지현, 구주 방면으로 이사해 간 신자들에게서 여비와 ‘와 달라’는 청원을 받고 즉시 그 모든 지방을 순회한 결과, 새천곡에서는 기도소, 애지현에는 지교회를 설립하게 되자, 그 인도자로 본교회 류재현이라는 형제가 자급적으로 동지교회를 인도해주기로 자원하고 곧 실행하는 중인데 동 지교회에 한가지 특별한 것은 원적을 경기도 인천에 두고 생활난으로 도일하여 당지 모 공장에서 노동을 하며 본교회에 열심히 출석하는 여 교유 5인이 있어 자기들의 구원의 경험을 그 공장 공녀들에게 증거하는 일방 100유여명을 본교회에 출석케한 결과, 그 공장 주인과 감독에게 무수한 편박을 받게 되어 심지어 유형이 낭자하기까지 4,5차 구타당하였으나 조금도 굴하지 않으면서 하는 말이 ‘우리가 교회에 출석하는 것은 우리의 영혼을 위함이요, 공장에서 노동하는 것은 우리의 육신을 위함인바 육보다 영을 더 귀중히 여기는 우리로서는 귀 공장에서서는 나갈지언정 교회에 출석치 않을 수 없다’고 함으로 주인과 감독도 마침내 지게 되었습니다.

이로써 보면 신앙 앞에는 무엇이랴도 당적할 것이 없는 줄 알겠습니다.

1929년 구령현장

1928~9년 동경성결교회 대표 성도의 씨명은 활천 1929년 1월호 광고란에 기록되어져 있다.

윤낙영尹洛榮 박노희朴魯姬 김성복金成福 박진환朴珍煥 유재현劉載獻

그리고 조선예수교동양선교회성결교회 제2회 연회(1930. 3.5~9)가 경성성서학원 대강당에서 개최되었다. 각지방 각교회교세보고(1929년도분)가 있었고 이사회직할지방에 소속된 동경교회는 윤낙영 전도사가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보고했다.

신도 총수	세례인 총수	신세례 인수	학습인 수	월정헌 금총액	자급지 불액	헌금총 액	지불총 액	지교회	기도소	주교 생도
50	22		7	50원	?	328.28	298.50	1	1	20

이성영(李聖英) 목사



동경 심천조선인기독교교회(1939년)
중앙 오웬 스틸 선교사 우측에 앉은 분(흰색 원)이 담임목사 이성영이다.
[출처: Tokyo Christian]

조선총독부관보에 따르면, 이성영(李聖英)은 1927년 8월 1일 경북 경주군 경주면 로동리 10 소재 경주성결교회에 포교계가 제출되면서 공식적으로 목회 활동을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제0227호 3면, 소화 2년 9월 29일). 이어 같은 관보에는 이명헌에서 이성영으로 포교담임자 변경계가 제출된 사실도 확인된다

(제0227호 6면, 소화 2년 9월 29일).

그 후 1936년 6월 30일에는 경남 김해군 김해읍 동상동 746 소재 김해성결교회로 포교자 거주지 이전계가 제출되었고(제2896호 7면, 소화 11년 9월 5일), 같은 해 11월 1일에는 천세봉에서 이성영으로 포교담임자 변경계가 다시 제출되었다(제3007호 6면, 소화 12년 1월 26일).

1940년 6월 15일에는 김해성결교회의 포교담임자가 이성영에서 차창복으로 변경되었으며(제4104호 2면, 소화 15년 9월 24일), 같은 해 9월 24일에는 이성영의 포교 폐지계가 제출되었다(제4256호 13면, 소화 16년 4월 2일).

한편 김해제일교회 약력에는 이성영이 제4대 담임목사로 부임하여 1934년 7월 25일부터 1938년 6월 8일까지 사역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그는 성우청년회 등을 조직하며 청년 사역과 지역 복음화에 힘쓴 것으로 소개된다.

또한 「도쿄 크리스천」 1939년 4월호는 일본 도쿄 심천(후카가와)조선인기독교회가 약 6개월간 목회자를 구하지 못하다가 1938년경 이성영이 부임한 사실을 전하고 있다. 그가 심천조선인기독교회에 언제까지 재직했는지는 명확하지 않으나, 1941년 1월 21일 요츠야기독교회 선교부 회합에 참석한 기록이 남아 있다. 이 회합은 일본기독교단 가입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열렸으며, 이성영은 삼하도(미카와시마)조선인기독교회의 이원균 목사와 함께 가입 찬성 입장에 섰다. 선교사들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조선인 목회자들은 다수결로 가입을 추진하였다("A Statement of Facts," *Tokyo Christian*, April 1941, 40 no. 6, 3).

그러나 1941년 4월 1일 새 종교법 시행으로 선교부의 급여 지급이 중단되고 선교사들이 귀국했으며, 같은 해 12월 7일 태평양전쟁까지 발발하면서 일본 내 조선인 교회들은 큰 어려움에 처했다. 선교사들은 1941년 말까지 후원금을 일괄 지급한 뒤 철

수하였고, 이원균 목사가 그랬던 것처럼 이성영 역시 1941년 어느 시점에 심천조선인 기독교회를 사임하고 귀국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요츠야선교부 소속 일본교회 목회자들 가운데 제1·4·5교회 목회자를 제외한 나머지 4명도 조선인교회 사역자들과 함께 일본기독교단 가입에 찬성하였다. 그러나 이들 교회는 모두 전쟁 중 피폭되어 파괴되었고 교인들은 흩어졌다. 역설적으로, 통합교단 가입을 거부한 제4교회만이 피폭을 면하고 살아남았다. 담임목사 신한유는 징집되어 종전까지 6년간 중국에서 복무하였고(John T. Chase, "Open Doors in Japan and Korea," *Christian Standard*, 15 February 1947, p.105), 사모는 일본기독교단 가입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교단에 가입한 목회자들로부터 탄압을 받았다. 그럼에도 그녀는 교회를 끝까지 지켜냈고, 1947년 선교사들이 재입국했을 때 예배를 드릴 수 있었던 유일한 교회가 되었다.

삼하도조선인기독교회는 전후 복구되어 오늘날 동경복음교회로 이어지고 있으며, 1941년 6월 24일 33개 개신교 교파가 통합되어 결성된 일본기독교단(일본그리스도교단, The United Church of Christ in Japan)은 현재까지 존속하고 있다.

조선총독부관보의 기록이 김해제일교회 약력 및 「도쿄 크리스천」의 연대와 차이를 보이는 이유는, 성결교회 포교관리자가 조선총독부 학무국 사회과에 제때 신고하지 못하고 나중에 몰아서 신고했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참고문헌

김해제일교회 연혁(<https://www.1stch.com>); John T. Chase, "Open Doors in Japan and Korea," *Christian Standard*, 15 February 1947, p.105.; *Tokyo Christian*, 1939년 4월호; "A Statement of Facts," *Tokyo Christian*, April 1941, 40 no. 6, 3.; 「조선총독부관보」 1927.9.29.; 1936.9.5.; 1937.1.26.; 1940.9.24.; 1941.4.2.; 『조선총독부 기록으로 본 한국 그리스도의 교회』(조동호, 그리스도의교회연구소, 2016: <http://kccs.info/조선총독부 기록으로 본 한국 그리스도의 교회.pdf>); 『한국 그리스도의교회의 역사』(백종구, 조동호, 쿤란출판사, 2018); 『한국 그리스도의 교회 이야기』(조동호, 그리스도의교회연구소, 2017: http://kccs.info/그리스도의교회이야기_증보판20181113.pdf); 『한국 그리스도(인)의교회들 초기 50년사(1924-1974)』(조동호, 도서출판 끌림, 2023).